

## 타다 남은 유서내용

××× ××× 왜 죽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친구들아 12년간 긴 세월 ×× ××× ×× 목이 매어  
우리 ×× ××× 쇠사슬에 쥐꼬리만한 명예와  
권력을 위해 공부벌레가 되어주길 바라는 기성세대 및  
벌건 대낮에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도 심장이 터질듯한 분노의 가슴을 잃어버린  
우리 배움에 학도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 ××

〈전남일보 기자 제공/불에 타 내용을 전부 확인할 수 없지만  
철수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슴에 와 닿는다〉

## 철수 유언

우리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잘 알것입니다.  
현시국이 어떤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알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자기만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로버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엄연한 학생입니다.  
제가 왜 그런 로버트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더이상 그런 취급을 받느니  
지금의 교육을 회피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무엇이 진실한 삶인지 하나에서 열까지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는 일마다 정의가 커져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힘이 없습니다.  
3주일 동안 밥 한술도 못먹고 하루에 물 한컵만 먹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위해 지금까지 힘차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확실히 믿습니다.  
다음에 살아서 더욱 힘차게 만납시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숨을 거두기 3일전 철수의 요청에 따라 병상에서 녹음한 내용임〉

# 침교육의 불꽃으로

— 애국학생 고 김철수군 추모집 —

애국학생 고 김철수군 추모사업준비위원회




## 김철수 약력

-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829
  - 1973. 3. 20일생(19세)
  - 학교:보성중을 거쳐 보성고 3학년 5반에 재학
  - 가족관계:김종국(父. 농업 52세)  
선영심(母. 49세)  
3남 3녀 中 차남
  - 종교:불교
  - 성격 및 평소 생활태도
    - 주관이 뚜렷하고 의사표시가 분명함
    - 성취의욕이 강하고 매사에 적극적임
    - 생활이 모범적이고 학업성적도 우수함
- (90년 생활영어 최우수상 수상.  
'91년도 3월 모의고사때 문과 수석)

# 침교육의 불꽃으로

— 애국학생 고 김철수군 추모집 —

애국학생 고 김철수군 추모사업준비위원회

도서  
출판 



# 우리들 가슴 속에 떠있는 형형한 별 하나

이 봉 환(전 여수상고 교사)

보성읍 봉산리의 밤하늘을 가르며  
푸른 별 하나  
우리의 가슴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슬픈 별빛 한 줄기가  
하늘에서  
우리 사무치는 눈물 속으로  
후둑후둑 꽃잎져 내렸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벗들을 사랑하고 시대를 온몸으로 사랑하면  
어머니의 피눈물 속에서  
저렇게 형형한 별빛이 된다고  
그날  
사람들은 주먹 부르짖며 울었습니다.  
럭럭  
숨이 막히도록 하늘 우러르며  
가슴 속 눈물을 삼키었습니다.

엄마, 저 학교 다녀 올께요  
 가방을 둘러 매고 부엌을 둘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다.  
 아버지 들일 나가신지 이미 오래  
 어머니도 벌써 발매러 가셨나  
 오늘따라 일찍 말씀도 없이  
 모두 일어나고 없는 텅빈 집  
 쓸쓸하다 철수는 왠지 쓸쓸하다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빈 집과 어머니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아무진 철수의 얼굴에도 그만  
 슬픔이 밀려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흐르는 눈물 속 저 멀리  
 깔끄막 산발을 오르시는 어머니  
 하얀 몸베옷이 바람에 날린다. 아  
 어머니 어머니  
 당신을 사랑하는 이 눈물로  
 당신이 가야 할 세상 열어 드릴께요  
 당신의 가난과 뼈빠지는 아픔의 세월  
 당신을 사랑하는 이 아들의 육신으로  
 훨훨 남김없이 다 태워 드릴께요  
 철수는 눈물을 닦고 흐르는  
 아픈 눈물을 닦고 길을 걷는다  
 영철이와 삼옥이  
 경오가 기다릴 등교길 오른다

1991년 5월 18일 월요일

학생회와 뜻있는 친구들은  
 어렵게 따낸 5.18 기념행사에 바쁘다  
 학생회장이 사회를 맡고  
 경오는 만든 유인물을 뿌리고  
 벗들과 후배들은 운동장에 모인다.  
 우릴 바보같은 어린애로 보지 마세요  
 80년 5월 보리밭 푸르던 날  
 금남로에서 총맞아 죽은 영진이형도  
 그때 우리와 같은 열여덟 나이였어요.  
 언제  
 교장선생님 떠분한 후시 때 저렇게  
 엄숙하고 진지했을까  
 이제 친구들은 애국가를 부르고  
 고개숙여 묵념을 한다.  
 철수는 생각하고 그리고  
 저 빛나는 눈빛들을 가슴에 안으며  
 다시 한번 주먹에 힘을 모아 결심한다.  
 1991년 5월 18일 오전 10시 15분  
 정비실 뒤에서 온몸에 신나를 끼얹고  
 결심을 한다 눈부럽더  
 어머니 얼굴 한번 떠올리고  
 눈을 감고 아버지의 가난을 움켜쥐고  
 결심을 한다 불을 당기리라  
 내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 불을 당기리라

노래우 정권 퇴진하라!  
 이런 잘못된 교육을 받을레나?  
 불붙은 몸을 벗들을 향해 달리며 철수는 외친다  
 추추한 옷자락을 태우고

불길은 철수의 생살을 태운다

내가 왜 죽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친구들이 12년이란 긴 세월  
참교육이 목메이게 그리웠다  
쥐꼬리만한 명예와 권력을 위해  
공부벌레가 되어주길 바라는 기성세대  
벌건 대낮에  
강경대 열사가 쇠파이프에 맞아 쓰러져도  
심장이 터질 듯한 분노의 가슴을 잃어버린  
우리 배움의 학도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친구들이  
내가 왜 죽는지  
진정 너희는 알아야 한다

영철이는 그만 숨이 막힌다  
철수가 제 몸에 불을 붙이다니  
좋은 공부 열심히 하자던 철수  
유서가 몸과 함께 타고 있다, 아  
내 친구가 생살을 태우며 죽어간다  
가난에 굴하지 않은 철수  
과묵하고 자주적이었던 철수  
무엇보다 인간을 가장 신뢰해  
친구들의 모범이 되었던 철수가  
이 하얀 백주에 분신을 하다니  
영철이와 친구들은 그만 숨이 막힌다

4

철수는 친구들 앞에 쓰러진다

영철은 정신없이 몸에 붙은 불을 끄고  
겁게 탄 철수를 안고 달린다  
보성에서 전남대병원까지 차는 화살처럼 달리지만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병원에 가면 철수는 살 수 있을 것인지  
영철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그러나 철수는  
고통을 악물며 검은 입술로 말한다

우울지마 영철아아!  
우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좀 불러줘억!

그래 그 노래 불러줄께  
네가 그토록 원하는 노래  
내가 남아서 불러줄께, 하지만 지금  
영철은 철수의 손을 잡아줄 수도 없다  
다만 눈물젖은 눈빛으로 울먹임으로  
철수야 죽지마 죽으면 안돼  
가슴태우며 빌고빌며 발만 구를 뿐  
물 한모금 줄 수가 없다 네게  
조금만 참으라고 말할 수도 없다  
영철은 철수를 안고 화살처럼 달려간다

5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 째  
철수는 물 한모금 달라고 외치다 의식을 잃고  
부모님께 조금은 죄송하지? 하고 물으면  
응, 하고 대답하다 의식을 잃고  
철수야, 네 뜻이 전국으로 퍼져가니 기쁘지? 물으면  
정말? 하다가 학! 하고 숨이 막혀 의식을 잃고

철수는 목숨 버릴 것을 생각하면서  
가정과 부모님을 포기했고  
자신의 이상과 꿈을 포기했고, 그러나  
철수는 이것을 한꺼번에 실천했다  
입과 코에서 노폐물을 빼내고 나서  
영철은 온기 없는 철수의 손을 잡아본다  
철수는 손을 흔들며 달라고 한다  
가만히 철수의 손을 흔든다  
비닐장갑에 붉은 피가 흐른다  
철수의 붉은 피가  
순수한 애국청년의 피가 흐른다

날이 갈수록 고통은 커가고  
철수는 이를 악문다 악! 악! 악!  
붉은 피가 점점 검은 색으로 변해간다  
아. 이 살 썩는 냄새 철수가 죽어가는 냄새  
영철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철수의 검은 살에 가아제를 덮는다  
경련하는 그의 영혼에  
하얗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뿌린다

맺음시

이제  
철수는 우리의 가슴 속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이 되었습니다  
15일간의 눈물겨운 투병의 보람도 없이  
벗들의 어머니의 애국시민들의 곁에  
검게 탄 제 육신을 남겨두고  
먼 하늘의 푸른 별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별이 되어 멀리갔으나  
그의 푸른 빛은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못 다 부른 노래 우리가 불러  
아름다운 세상이 오면  
철수는 오월의 푸른 보리밭 물결처럼  
우리곁에 부활하여 올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소풍때 독사진



친구생일잔치때 가장 잘 돌봐주었던 친구 병종(맨 왼쪽)과 함께 찍음. 철수는 오른쪽에서 두번째



제6회 보성고 봉황축제 때 Interact 중창하는 모습



회천면 일림산에서 인터랙트 동료와 함께



병상에 누워있는 철수



김철수 열사 분향소 앞 유족들



철수의 쾌유를 빌며... (전대병원)



영결식때 분향을 마친 후배들의 슬픔



열사도



도청노제



도청을 향해...



철수의 넋을  
달래는  
진혼굿



철수의 묘  
(망월동)

망월동에  
놓다



## 차례

서 시 : 우리들 가슴속에 떠있는 형형한 별 하나 · 이봉환/5

발간사 : 추모집을 내며/23

짧은 생애를 회고하며 · 이종영/26

제1부 : 김철수분신의 의미와 청소년 삶의 현실/30

1. 91년 5월의 분노와 함성 · 정진규/32

2. 김철수군의 분신의 의의와  
교육운동사적 의의를 생각하며 · 이상현/44

3. 고등학생운동에서  
김철수군의 분신과 학생운동의 방향 · 이상호/55

4. 우리나라 현행법체계상 고등학생의 권리 · 신현직/69

5. 청소년의 특성과 주체적 삶의 조건 · 김성재/77

---

6. 자율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는 어디에 · 강혜원/85

7. 청소년 학생의 현실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서의 유의점 · 김남선/93

제2부 : 추모글 · 자료 · 모음/112

1. 분신경과/114

2. 상황일지/117

3. 병상일지/122

4. 추모글/132

· 철수여! 천만 학우의 사랑이여 · 정경호/132

· 결코 잊을 수 없는 음성 · 박효수/134

· 하나님, 철수를 우리 철수를 보살펴 주세요 · 이의숙/136

---

· 철수의 오월 · 김수미/139

· 네 뒤통까지 살아 투쟁할게 · 병종/5

· 철수의 고백 · 친구/143

· 철수오빠에게 바치는 글 · 안진선/144

· 부모 형제들께 · 보성고등학교 학생일동/147

· 우리들의 결의(군민과 학우들에게 드리는 글)/149

5. 철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151

· O양의 유서/155

· 내 죽음을 왜곡시키지 말아다오/159

김수경학생 자살경과보고/167

· 이제, 어둠이 가고 빛이 올 때/166

심광보군의 상황/167

## 추모집을 내며

김 영 효(추모사업준비위원장)

1991년 6월 8일 오전 보성고등학교 교정에서는 장대같은 빗줄기속에 김철수 학생의 영결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간 그러나 너무나 큰 뜻을 알리고 간 철수를 보내는 날, 영결식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 교사, 시민의 눈물과 다시 부활하라는 함성이 빗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배움은 남을 위해 써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애써 남기고자 하는 철수의 떨리는 마지막 음성이 더듬더듬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을 믿는다는 유언이 살아남은 자의 가슴속으로 아프게 솟구치며 흘렀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의 통곡이었고 친구를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이었고 제자를 보내야 하는 못난 스승들의 기막힌 고통이었습니다.

철수는 항상 주위 동료 학생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성실한 학생이었으며 어려운 친구를 따뜻하게 보살필 줄 아는 가슴 넉넉한 학생이었습니다. 삶을 가장 가치있게 사는 길을 일찍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했던 철수는 분신때 그 뜨거운 불길속에서도 제 발로 걸으며 의사표시를 했던 끝까지 깨끗한 아이였습니다. 병상의 고통속에서 주위의 친구와 부모님을 걱정하는 모습은 아직 어리다할 18세의 한 고등학생의 모습이 아니라 참 인생을 얻은 큰 거인의 진지함과 용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청소년기의 많은 학생들은 삶과 배움이라는 명제에 부딪혀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와 같이 정의와 가치관이 혼란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 순수한 이성으로 사고하고 삶의 철학을 고민하는 그들에겐 현사회의 모순이 자신의 갈등으로 치닫게 됨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철수의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모여든 많은 학생들이 장례 전날 보성고등학교 교실에서 밤을 세우며 토론하고 고민하던 모습은 김철수열사의 아픔이 몇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많은 고등학생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번민, 그 번민의 몸짓은 바로 우리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먼 젊은이들의 것이 아닌 바로 내 주위 내 가족의 것입니다.

“신문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 간다는 말은 들었어도 설마 내 자식이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같은 지역의 정상순 열사의 가족들이 병원에 달려와 처음 던진 한마디입니다.

철수가 불로 제 몸을 사르면서 남기고자 했던 뜻은 우리에게 깨우침이었습니다. 이 땅에 반교육의 벽이 얼마나 두텁고 그 울타리에 갇힌 순수한 영혼들이 얼마나 고뇌하는가를 일깨우는... 그리고 입시지옥이라 불리는 현교육제도속에서도 우리는 가치있게 쓰이는 배움을 가르치며 얻어야 한다는 것, 정의를 위해서는 분명히 일어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몫이라는 것, 일상의 삶에 내몰린 우리를 일깨워 세우며 철수는 그렇게 갔습니다.

이 추모문집은 철수의 희생이 우연한 한 사건이 아닌 큰 희생의 값진 가르침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배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남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엮어지게 된 것입니다.

좁은 시각으로 철수의 큰 뜻을 다 담지 못한 점이 걱정되고 혹 거스르게 될까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더 큰 자취들이 우리 삶 곳곳에서 밝혀지리라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은 많은 참교육동지들의 또

거운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땅의 황폐한 사회와 교육현실에 항거하며 먼저 간 많은 젊은이들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칩니다.

1992. 5

## 짧은 생애를 회고하며

이 종 영(보성지회 연사부장)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곳을 망연히 주시하는 그의 모습은 순진함을 넘어 어리숙하게 보인다.”

철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그의 모습이다.

그는 남도의 끝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평범한 농촌의 가정에서 부친 김종국씨(53)와 모친 손영심씨(49) 사이에서 3남 3녀 중 차남으로 1973년 태어났다.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89년 보성고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는 공부 잘하고 성실한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한 평범한 고등학생에서 애국고등학생 고 김철수열사로 우리 교육사와 고등학생 운동사에 우뚝 서게 되기까지 그의 고등학교 생활 중 「인터렉트」 「풍물반」 「술개」로 이어지는 학생활동과정을 통해 짧은 생애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 — 새롭게 눈을 뜨고 —

80년 중반까지만 해도 보성지역에는 카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두 단체가 종교활동과 함께 보성의 진보적 운동단체로서 농민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타 지역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보성의 학생들도 역사와 사회에 눈을 뜨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5공정권의 장

기집권 음모에 맞서 온나라를 휩쓸었던 87년 6월항쟁은 보성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열기는 보성 구석구석을 행사와 집회의 물결로 넘실거리게 했으며 이때에 태동을 하던 농민 청년 활동가들과 만나게 된다. 이후 이들은 정기적 모임을 갖고 6월항쟁의 열기를 지역 민주역량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되나 관여했던 학생들이 졸업하자, 다시 보성학생운동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1년의 공백기를 지난 89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은 정체되어 있던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을 일으키며 많은 교사와 학생들의 무관심에 자극을 주게 된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 곁을 떠나게 되고, 이후 선생님들의 고통과 투쟁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철수에게 사회와 역사와 교육과 고통의 근원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는 선생님들의 어려운 선택에 학생으로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해야 한다고 결심, 몇몇 동료들과 같이 뜻을 모으던 중, 마침 사무실을 마련 조직활동을 시작하던 청년 농민 활동가들과 결합하게 된다. 이때부터 철수는 그의 기록에서 보이듯이 학생을 로보트화 시키는 교육모순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이 땅의 왜곡된 경제구조와 아버지의 땅인 농촌문제에 대해 새롭게 눈을 떠 가게 된다.

### — 새로운 인식은 새로운 실천으로 —

2학년 겨울방학을 맞으면서 그는 학우 20여명과 함께 풍물연수를 기획, 실천한다. 연수활동 중 남들이 꺼리는 징을 혼자서 도맡고 과묵한 성격에도 모임이 침체되었을 때 우직한 유머와 몸짓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등 헌신적 노력으로 이후 「술개」로 조직적 발전을 해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 시기 그의 헌신성은 「인터렉트」라는 봉사단체에서 만난 정병종 학생과의 교우 관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병종이는 고등학교까지 한글을 완전히 깨우치지 못해 소극적인 성격과 학교생활로부터 소외된 학생이었다.

철수는 병종이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교우관계로 발전



시킨다. 품물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고 교실에서는 짝으로, 자취생활도 같이 하다시피 하면서 등하교길도 항상 함께 해 병종이의 학교생활에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준다.

이후 철수가 분신했을 때 병종이는 서투른 글씨로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철수'라고 짓겠다...」는 편지로 서로의 깊은 우의 관계를 말하고 있으며 이 편지는 도청노제때 읽혀졌다.

#### — 실천은 뛰어난 자기 관리 속에서 —

2학년이 되자 철수를 비롯한 연수팀은 보다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민하다가 전교조 보성지회 사무실을 찾는다. 「학교밖의 종교모임」, 「보성지역 고등학생연합」, 「학내 동아리」 등 조직방식에 대한 여러가지 시도 끝에 학교내에 공인받는 동아리를 만들어 재생산력을 갖는 조직으로 정착시키기로 하고 「솔개」라는 명칭의 동아리를 결성한다. 이때 철수는 열심히 뛰어다니며, 학습프로그램, 후배모집과 관리, 후배 교양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조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동료, 존경하는 선배로 불리워지게 된다. 분신 후 자주 정신을 놓치는 극한 병상투쟁 중에도 후배들의 안부와 관리를 걱정했던 그의 책임감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집에 돌아가면 그날의 학습목표를 읽은 자리에서 꼭 끝내고서야 일어서는 의지력으로 발전 3학년초 학내시험에서 문과수석을 하는 등 성숙한 자기관리 능력을 보여준다.

#### — 철수의 아버지는 즐기던 술을 끊고 —

“아빠! 누가 키가 더 큰가 키대기 해요.” “아빠 말씨름 합시다!” 철수가 분신 전까지 바쁜 학교생활 중 봉산리 집에 가면 아버지의 목에 매달리며 재물을 떠는 모습이다. 학교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집에서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하는 철수는 그대로 부모님의 기대를 받기 충분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몇년 전부터 즐기던 술까지 완전히 끊고, 농사, 소키우기, 목수 일, 어머니의 삼베짜기 등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해 새로 집을 고치고 자녀들 학비문제에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살림을 늘려간다. 동생들도 공부를 잘해 마을에서는 가족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화목한 철수네집을 항상 부러워했다고 한다.

#### — 뜨거웠던 91년 5월 정국 —

「강경대열사 추모및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보성군민 결의대회」가 보성군 4개 민주단체 주최로 5월 12일 보성역 광장에서 열린다. 행사를 준비하는 데 철수는 어느틈에 달려와 보성역 건물 옥상에 올라가 대회프랑을 걸고 있었다. 행사후 가두행진을 할 때 짬에 철수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대열의 선두에서 투쟁하고, 젊은이들이 죽어가는데 분노하지 못하는 세대와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린 청년학생들에 대해 아픈 가슴을 토로한다.

이때 철수는 타살주범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이러한 타살은 이땅의 열혈청년들이 들불처럼 일어서서 분노하지 못하는 불감증과 이기주의로부터 잉태되었고, 이는 인간을 로버트화 시키는 비인간화교육 문제로부터 출발했다고 자신의 노트에 쓰고 있다. 그가 2학년 9월에 부산 어느 고무공장으로 학교를 뛰쳐나간 것과 유서에서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인간화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쓰고 있는 것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다.

「...내가 왜 분신을 했는지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유언을 끝으로 짧은 생애를 마치고 우리의 곁을 떠나간 애국 고등학생 故 김철수열사는 살아서는 18살의 순수한 열정으로 이 땅의 모순을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 우리의 친구였으며 죽어서는 영원히 참교육의 햇볕으로 이 땅을 밝히는 뜻대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살아 숨쉴 것이다.

제1부

김철수 분신의 의미와  
청소년 삶의 현실

## 91년 5월의 분노와 함성

정 진 규(전 사례지오고)

### 1. 91년 5월 그리고 분노

“승희야, 영균아, 철수야, 기철아! 죽지마라. 살아서 통일의 그 날을 맞이하자. 그대들이 아니면 이 땅의 민주와 통일은 누가 이룩하랴? 너희가 죽으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한단 말이나? 눈이 멀고, 팔이 부러지고, 허리가 잘리더라도, 또 감옥에 가더라도 죽지만은 말자!”

6년전 분신자결한 서울대생 김세진씨의 어머니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 어머니의 호소는 너무나 절절했다. 불덩이가 되어 숨진 아들을 묻은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이리했으리라.

“살아서 싸우자”고 외치는 것보다 더 높은 과학적 운동론이 없음을 91년 5월을 겪은 사람은 누구나 느낀 바이다.

1991년의 봄, 하늘을 뒤덮었던 구호, 함성, 결의들은 왜 우리들의 가슴에 앙금으로 엉켜서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을까? 피맺힌 목소리로 유언을 남기고 떠나간 열사들의 절규, 반드시 그들의 한을 풀어야 하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살아남은 자의 임무가 있기에 91년 5월을 더듬어 보는 것이다.

4. 26일 명지대생 강경대 학생이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타

살된 이후 “살인 폭력”정권에 항거한 분신투쟁이 분노와 양심으로 되살아났다.

“폭력살인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가 기민하게 구성되었다. 5. 4일 전국적으로 20만 이상이 살인규탄 집회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연일 수 만에서 수 십만에 이르는 인원이 참여한 대중집회와 시위가 일어났다. 이는 87년 6월항쟁을 연상케 할 정도로 단기간내에 광범위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 1) 91년의 봄, 함성, 결의

#### — 쇠파이프는 사용하지 않았다 —

26일 오후 6시 경대의 주검은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세브란스병원 영안실 8호실, 1시간이 지난 오후 7시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대의 친누나, 선미가 처음으로 소식을 듣고 도착했다. 선미는 응급실에서 채 찢기가 가시지 않은 동생의 참혹한 얼굴을 보았다. 어찌 상상이라도 해 보았으랴. 선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실신했다. 모두들 울었다. 이것이 어찌 남의 형제의 일인가. 하체는 흰천에 덮인 채, 상체만 보여진 경대의 시신은 뒷머리가 피에 흥건히 젖어 있었으며 오른쪽 눈썹 위가 깊이 0.7~0.8cm 길이 7~8cm 가량 패어 있었다. 또 가슴에 다섯군데 쇠파이프 자국이 나 있었으며 왼쪽 팔 전체는 구타로 인해 온통 빨갱게 멍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시위진압을 맡았던 서울 서부경찰서는 결국 3일이 못가서 인정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최루탄만 사용했지 쇠파이프는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권의 본질을 서슴없이 드러낸 예고된 살인사건. 20세의 젊은 꽃송이가 어처구니 없이 꺾여져 나간 이 사건에 접해 전국의 시민, 학생들은 일어서기 시작했다.

“공안통치 종식, 살인정권 퇴진, 백골단 해체 등등”분노의 불꽃은 함성과 결의로 전국에 타오르게 되었다.

4월 27일~5월 3일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 결성”

27일 오후 3시경 연세대에서는 학생 8천여명이 대학별로 집결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대회”를 가졌다. 경대의 부모님과 누나가 참석했고, 참가자들은 숙연한 모습이었다.

또한 전민련, 전노협, 전교조 등 재야단체와 시민, 민주, 민중당 등 3개 야당 및 35개 재야 사회단체 대표 40여명은 27일 낮 12시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범국민 대책회의”를 결성하고 29일 오후 5시 전국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경대를 죽인 그들은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였다. 젊은 전경들을 권력유지만을 위해 거리로 내모는 정권, 그들만이 가장 확실한 살인범임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 기만적으로 검찰은 근본원인을 회피하면서 단지 누가 폭행에 가담했는가에만 시민들의 관심을 묶어 두려 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대통령은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결국 이러한 정권의 태도는 이후 엄청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수많은 젊은 양심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버린 것이다.

#### — 슬퍼하며 울고 있지 말자 —

4월 29일 3시경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앞에서 이 학교 가정대 2학년 박승희양(20세)이 분신투쟁을 감행 3도 중화상을 입고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승희는 27일 전남대 용봉지 편집실 자신의 책상서랍속에 3통의 유서와 시 한 편, 그리고 “2만 학우들이 잘 다니는 곳에 심어달라. 항상 함께 하고 싶다”라는 쪽지와 코스모스씨 한 봉지를 남겨 놓았다.

연세대 도서관 앞, 오후 6시.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가 시작되었다. 연단에 오른 문익환 목사는 승희의 분신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하였고

“강군 살인은 궁지에 몰린 독재정권의 발악”이라며 “죽어서는 안 돼요! 학생들은 제발 살아서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그리고 요구했다. “열사의 죽음은 장기집권을 마련하려는 폭력적 공안통치의 필연적 결과”라고 밝혔고, “민자당 해체, 노태우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사과, 내각총사퇴, 책임 경찰 간부의 구속”을 요구했고, 현정권의 폭력성을 강력하게 규탄할 것을 결의했다.

#### — 백골단 해체할 뜻 없다 —

5월 1일 국회 내무위원회에 참석한 이상연 내무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사복체포조는 경찰관이지만 편의상 정규복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폭력 시위현장에서 주모자를 색출 검거하기 위해서는 운용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해 백골단을 해체할 뜻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정권의 폭력성을 여실히 드러낸 말이었다. 그후 이러한 정권의 폭력에 항거한 수많은 젊은 꽃들의 죽음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안동대 김영균 군의 분신행거가 이날에도 일어났고, 전국 15개 지역 10만여명의 시위로 확산되었다.

5월 2일 서울시경 제2기동대에서 근무해 온 나운성 의경이 부대를 이탈해 연세대에서 의무경찰의 시위진압 동원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금과 같이 집회의 자유 등을 가로막는 독재정권이 있는 한 제2, 제3의 강경대 타살사건이 잇따를 것은 뻔한 일”이라며 백골단 해체를 요구했다. 이러한 분노는 계속 이어져 5월 3일 종교, 교육, 여성 문화계 등에서 잇따른 시국선언, 향의, 농성, 성명 등으로 이어졌다.

#### 5. 4일~6. 3일

열사들은 이러한 투쟁을 보고 있을까

“백골단해체 투쟁의 날”로 선포한 5월 4일, 서울 6만 부산 5만

등 전국적으로 20여만명 이상의 시민과 학생 등이 참여하였고 경찰의 원천봉쇄로 전국의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일어났다. 부상자 속출, 유혈사고가 일어나 서울에서만 20여명의 중상자가 생겼다.

이날 치안본부는 “최루탄은 엄격한 통제아래 최소한만 사용하고, 폭언, 구타행위 등은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직격탄이 난무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한 5월 6일 새벽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한진중공업 박창수씨가 병원 치료를 받다 의문의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혹으로 싸인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 탈취극이 벌어지고 검찰은 자살로 단정지어 버렸다. 이에 대응 신속하게 “노동자대책위”가 구성되었고 노동자들의 구심을 확보하여 갔다.

그러나 정권의 대응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5월 8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분신이후 강경탄압 공안정국으로 돌아갔다. 그야말로 “초강경대응책”을 내놓았다. “분신에는 배후가 있는 것 같다”며 분신자살한 배후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으며 모든 집회를 원천봉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상연 내무장관, 법무, 교육부장관과 전국 33개 대학 총장은 시국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여기서 총장들은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 사회 등 불만요인의 제거와 법 개정 등 가시적인 민주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으나 3개 부처의 장관들은 “민주적 절차로 수립된 정부를 타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민주적 발상이다”라고 총장 등을 질책하는 작태를 보였다.

#### — 숫구치는 함성은 거리를 매우고 —

민자당 창당 1돌을 맞은 5월 9일 30여만명에 이르는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전국 87개 시, 군에서 민자당 해체와 노태우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6공 최대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노동자, 학생들이 대규모 작업거부와 동맹휴업 등을 실행했고 도심 전체는 거대한 시위군중의 물결로 넘쳤다. 경찰은 시위대의 숫자에 밀려

일부 도시에서는 외곽지역 진압을 포기할 정도의 거대한 분노의 함성이었다. 그러나 민자당의 대답은 “날치기”였다. 국가보안법, 경찰법안을 날치기로 강행하였던 것이다.

— 아이들을 더이상 죽게 할 수 없다 —

현정권이 사주한 분신이다. “분신을 누가 배후 조종한다 말인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누가 버리라 한단 말인가.” 5월 10일 윤용하씨의 유서는 현 정권의 분신배후 조작설에 항거한 분노였음을 보여주었다.

강경대, 박승희, 천세용, 박창수, 김기설, 윤용하 —

계속 이어지는 죽음앞에서 이땅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양심은 “더이상 아이들을 죽일 수 없다”며 전국에서 시국선언의 불길로 타올랐다.

교육부의 징계방침에도 불구하고 5월 8일 이후 전남, 서울, 부산, 광주, 경북, 대구 등 전국의 초, 중, 고 교사 4천 7백여명이 참석했다.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시국선언에서 교사들은 “현정권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사태해결의 입장을 밝힌 동료교사들을 불온시하고 징계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시국선언 교사 탄압 중지, 현정권의 공개적인 사과와 내각 총사퇴, 해직교사 원상복직 등을 요구했다.

— 살인교육이 끝내 철수를 죽게 하고 —

살인교육이 끝내 철수를 죽게 하고, “대책회의”가 주관한 제2차 국민대회와 중단되었던 강경대 열사의 장례식이 열린 18일, 40만여로 추산되는 시민, 학생, 노동자들이 전국 81개 지역에서 폭력 정권 규탄시위대열에 참가해 6공화국 출범 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또 전국 1백 48개 노동조합에서도 이날 하루동안 시한부 파업에 들어간 채 지역별로 대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이 날 또 꽃다운 젊은 녀이 분신으로 쓰러져 갔다.

전남 보성고 3학년 김철수 군이 온 몸에 신나를 끼었고 분신.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중태에 빠지게 되었다. 철수는 당시 분신의 과정에서 “너희 이런 교육을 받을거냐?”라고 주위의 친구들에게 절규하였고, 구급차 앞에서 ‘우리의 소원’ 5월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다 한다.

고등학생 분신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지역에서는 “김철수 열사 분신대책위”가 구성되었고 각 학교에 이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였다. 또한 광주 시내 고교생 6백여명은 19일 오후 전남대 병원 응급실 앞에 모여 철수의 쾌유를, 백골단 해체를, 입시살인교육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철수는 온 몸이 타들어 가는 병상의 고통에도 5월 국민들의 뜨거운 반독재투쟁에 함께 하며 16일간의 처절한 병상투쟁을 마감하고 6월 2일 결국 숨을 거두었다. 이러한 김철수 열사의 죽음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에서 고등학생들의 강력한 열기를 집약하는 것이었고 고등학생들이 역사의 주체로서 일어선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던 것이다.

— 열사의 뜻은 우리의 가슴에 살아 움트고 —

19일 새벽 4시부터 16시간의 노제 공방이 운암동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다. 운암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쌀 5가마로 1천여 명분의 김밥을 만들어 시위, 학생과 운구차를 따라 온 명지대생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주위의 상가와 어린이들까지 물을 떠나르고, 잠을 못자고 피곤에 지쳐 도로가에 기대어 자고 있는 피곤한 학생들을 집에서 쉬게 하는 대동세상을 보여주었다.

밤 10시 시민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경찰을 따돌리고 광주은행 사거리로 진입한 이 날의 전과를 “운암대첩”이라고 불렀다. 노제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은 광주 시민들은 거의 10만 이상이 모여 강경대 열사의 노제를 시민의 힘으로 치루어 냈다. 다음날 20일 새벽 3시 망월동에 유족과 시민, 학생들이 오열하는 가운데 강경대 열사는 망월동에 편안히 안장되었다.

그후 박승희, 이정순, 김철수 열사가 끝내 숨졌고, 열사를 두번 죽이는 김기설씨 유서 대필사건의 조작, 신임 총리 정원식의 임명

으로 허울좋은 내각 총사퇴를 마무리 지었다. 또한 6월 3일 외국 어대에서의 정원식 총리 밀가루 사건을 계기로 열사의 뜻에 따라 폭력정권의 퇴진을 위해 싸우던 열기도 점차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후 제도 정치권이 광역의회 선거국면으로 빠지게 되고 58.9%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정치적인 무관심과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 2. 정권의 대응과 우리들의 과제

### 1) 정권의 대응

5월투쟁과 선거로 규정되는 정권의 대응은 철저하게 강, 온의 양면 작전이 활용되었다.

이는 5월투쟁을 고립,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었다. 5월투쟁이 6공 최대의 위기상황을 연출하였고, 그것이 선거 국면으로 이어질 때 선거 결과는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5월 투쟁이 선거로 이어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였다. 여당은 신민당을 설득하여 선거국면으로 끌어들이므로써 5월투쟁을 고립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분신투쟁이 잇따르자, 분신의 배후에는 어떤 검은 세력이 있어 분신을 투쟁구도화 하고 분신 자살조를 만들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장소를 바꿔가며 분신을 감행한다는 것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또한 지식인들을 이용하여 "죽음의 고향을 당장 집어치워라!",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을 밝혀야 한다" 발언이 언론에 증폭되게 하여 5월투쟁을 주도한 운동세력이 죽음까지 정치무기화하는 반인륜적인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비치게 했다. 여기에 더욱 김기설씨 유서 대필사건을 만들어 제도 언론이 검찰측의 주장만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운동세력의 도덕성에 또다시 의문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립화 전략을 기대이상 달성하게 해준 사건이 정원식 총리의 밀가루 봉변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많은 의문이 있었고 극히 우연적인 사건을 통하여 나타났으나 때를이니 하는 극한적인 용어를 써가며 철저하게 5월투쟁의 국면을 6월 광역선거로 몰아갔다. 또한 이를 선거에 철저하게 활용하였다.

### 2) 우리의 과제

#### — 6공의 정치·경제적 실정이 투쟁의 동력으로 —

91년 5월투쟁은 열사들의 뜻을 오늘의 산자의 의미로 간직하며 실천해야 할 과제로 삼으며 되돌아보아야 한다.

6공 최대의 위기를 조성하였고, 광범위한 대중을 정치투쟁으로 묶어냄으로써 노정권으로 하여금 총리, 장관의 경질, 대통령의 사과발언, 내각제 개헌 포기선언 등을 강제한 성과를 낳았다.

87년 6월 항쟁 이후 국민들은 정치적 허무주의 내지 무기력증에 젖어있는 듯 했다. 국민들의 투쟁을 선도하고 민주세력을 결집해야 할 민족민주진영은 정체와 분열양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제도야당 역시 대민자당투쟁을 활력있게 전개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강경대 열사의 타살사건 이후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투쟁은 급격하게 타올랐다.

이는 정치적 살인이라는 국민적인 분노가 한 계기를 주었을 뿐 투쟁의 진정한 원동력은 노태우정권의 계속된 실정, 수서비리로 대표되는 부정부패, 장기집권 내각제 기도, 정치적인 탄압, 경제의 불안 등에서 오는 국민들의 분노와 고통이 계속 누적되어 오면서 나타난 폭발이었다.

#### — 성과와 한계 우리의 할 일 —

한 측면에서 보면 물가가 전두환 정권 때보다 더 나쁜 상태에서 투쟁의 잠재력은 있으나 유혈쿠데타와 같은 정치적인 파국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국민적인 불만은 누적되어 있으나 행동 자체를 긴박하게 촉진시키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이다.

91년 5월투쟁을 분석하여 보면 조직대중운동이 87년 꾸준히 성장한 것을 반영하듯 제도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한 6월항쟁과는 달리 91년 5월 투쟁은 민족민주세력에 의해서 대중적으로 주도되었음이 6월항쟁과는 달랐다.

또한 5월투쟁이후 투쟁의 구심체 역할을 했던 “대책회의”를 발전시켜 91년 11월 모든 민족민주운동의 단일한 조직인 “조국통일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전국연합”을 건설하는 조직적인 성과를 낳았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제기할 문제가 있다. 물론 조직적인 대중운동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몇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었다.

첫째, 대중투쟁의 위력을 높이는 데 급급한 나머지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략구도가 없이 하루하루 사태를 이끌고 가는데 매몰되어버린 한계가 있기도 하였다. 또한 5월 20일 집회 이후에 투쟁의 질적인 전환(정치적인 목표나, 민중생존권투쟁의 강령화 등)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어 내지 못하여 장기적인 소모전 양상을 띠다가 결국 소강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즉 “노정권퇴진” 요구가 당면투쟁 목표로 등장하였지만 실제로 그것은 국민적인 설득력과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둘째, 보수야당들이 5월투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체제유지 쪽에 섰다는 사실이다. 투쟁진영의 강한 항의와 비난속에서도 신민당은 “책임있는 정당”이라는 명분아래 노내각의 사퇴와 내각제 개헌 포기만을 요구하면서 사태의 조기수습과 광역의회 선거전으로 방향을 잡아갔다.

그 결과 정부는 5월의 위기정국을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강경탄압과 제도야당에 대해 선거국면으로 몰아가면서 위기정국을 선거정국으로 돌릴 수 있었다.

5월투쟁의 한계는 그대로 광역의회 선거국면에서 작용하였다. 우선 장·단기적으로 전체적인 전략구도를 갖지 못한 채 5월투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거국면에서 주체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보수야당 역시 5월투쟁에서 거리를 두고 선거를 제도권에서만 해결하려는 자세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대중들의 분노에 찬 울부짖음을 간단히 외면한 제도야당이 선거때라고 관심을 가질 리 없었다.

이러한 5월투쟁과 광역의회 선거 결과를 통하여 향후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민민운동의 시급한 과제는 전체 민민세력의 확고한 결집과 이를 통한 정치적인 구심체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여야 한다. 5월투쟁에서의 한시적인 공동투쟁체가 갖는 한계를 명확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민민운동이 해야 할 과제는 장·단기적인 전체적인 전략구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5월투쟁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전략구도를 보더라도 각 부문운동의 적극적인 진출이 나타났으나 이를 통일시킬 수 있는 과정을 갖기가 어려웠던 점이 큰 문제로 나타났었다. 즉 대중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민생, 민권, 조국통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강령의 수립이 있어야 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나타나야 한다.

세째로는 민족민주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운동진영은 독재정권과 보수세력에 의해서 늘 “불순”한 “극소수”로 매도당하면서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받아 일반 대중들과는 연결마저 차단되어 왔다. 이에 우리는 대중성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는 과정이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나타날 것이고 91년 5월, 열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자기가 처한 조건과 상황에서 조직적이고 투쟁적으로 계승할 때 오늘을 살고 있는 산자의 임무가 덜어지게 될 것이다.

#### — 너희들에게 —

지난 봄 설레임으로 시작한 우리들의 만남이 익어 어느덧 한 학기의 끝에 섰다. 너희들의 밝은 웃음과 해맑은 눈빛과 아직한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좋아서 자랑스레 너희들 앞에 섰지만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돌아설 때의 크나큰 아쉬움이 가슴을 매운다.

지난 학기에 너희들의 언니, 오빠인 젊은이들이 몸을 불살라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른바 “달걀사태”에 그토록 호들갑을 떨던 “어른”들로 인해 지금은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듯 잊혀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가신 녀들의 명복을 빌며 그들의 처절한 외침을 새겨두어야 한다.

불의가 정의를 짓누르고 진실과 거짓이 뒤바뀐 혼탁한 시대에 너희들 앞에 “선생님으로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더냐? 이제 너희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것을 자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싶다. 너희들의 건강한 웃음과 고운 마음을 지켜 소중히 가꾸고 너희들 가슴 가슴에 사랑을 심고, 정의를 심고, 희망을 키우는— 그래, 나는 이땅의 부끄럼 없는 “선생님”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가슴에서 곳곳에서 살아오를 때 91년 5월의 열사들의 뜻이 조국의 강산에 함성으로 울려나지 않을까?

## 김철수군의 분신의 의의와 교육운동사적 의의를 생각하며

이 상 현(전 사레지오교사)

### 1. 철수 분신의 의미와 의의

#### — 철수 분신의 의미 —

가) 극복해야 할 제도교육의 모순 : 건설해야 할 인간교육

철수가 온몸이 화염으로 휩싸인 가운데서 100여 미터를 뛰어와서까지도 외치고자 했던 말은 “너희 이런 제도교육을 받을거냐”라는 외마디였습니다. 또 전대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도 그가 외친 이야기는 ‘인간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철수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학교생활이 갖고 있는 그 모순들이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 자신이 받았던 제도교육에 대한 사무친 한들이 그에게 노태우정권에 대한 사무친 한을 갖게 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납부금을 받아오면서도 그토록 그 사실을 미안해하고 자신이 받은 돈을 바라보며 “누구 배만 불리는 거냐”며 제도교육의 역기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철수. 철수는 죽음으로써 자신이 받은 잘못된 교육에 대해 항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외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교육이 얼마

나 학생들의 시급한 생존권적 문제인지는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사회구조의 문제이고 전반적인 변혁을 통하여 이루어질 문제이지만 그러기에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하기에는 너무도 늦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자아가 파괴됨을 발견치 못하고 방향없는 삶을 되는데로 추종하고 있는 학생들, 이를 몸서리치게 때뚱어 보며 해방의 몸짓으로 꿈틀거리며 입시의 논리에 안주하지 않고 풍물, 독서모임 등을 통해 사활적으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아이들, 이들 앞에 우리는 누구인가? 한뼉한 제도교육의 모순이 실행, 재생산되기까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이 모든 것은 한 시도 주춤거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교육의 문제요, 교사의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온몸으로의 저항과 실천을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모범을 스스로 보이고, 또 모범을 전파 확산시켜가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교육방법에서 아이들의 자율성과 주체성과 공동체성을 어떻게 보장해내느냐 하는 점입니다. 구조적으로 이를 제약하는 입시교육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자치활동을 교육의 원리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학생 스스로 교육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것을 주장하는 “철수”

철수가 분신을 하며 “너희 이런 제도교육을 받을거냐” 외쳤을 때 그 대상은 교사도, 학교도, 학부모도 아닌 바로 학생 자신이었습니다. 철수의 외침은 스스로 마지 못해 죽어가는 죽음의 뉘그러기 아닌 철수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인 삶의 길로써 절절히 외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모순된 자신들의 인간성을 송두리째 빼앗아 무기력하게 하는 현교육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이를 거부하는 인간교육을 스스로 찾아갈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철수는 학생이 교육문제 해결의 일 주체로 나서는데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과묵하고 진지한 그의 성품은 제도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인간관계를 동아리활동(술개, 풍물, 인터랙트)을 통하여 배워 나가려 하였으며 또한 풍부한 독서와 민속을 배우면서 자신이 살아갈 삶의 방향과 뜻을 세우는데 게으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주적 삶은 한 사람의 수양의 원리로서의 도덕이 아닌, 함께 하는 집단적 자주성으로 그 관심이 발전하는 것이 필연의 이치이기에, 철수도 현제도교육의 문제와 사회문제를 설득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무기력성과 집단적 무관심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고 때로는 분노도 느꼈을 것입니다. 학생을 주체로 바라보는 이 점은 학생이 제도교육의 1차적 피해자라는 점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피해를 자각하고 그 피해를 무기력하게 반복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도교육에 대한 무기력한 순응은 교사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교육 모순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겠지만 학생 스스로에게는 자신들이 이후 어디에 위치하든 그 삶 자체가 무기력한 패배로 전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학생운동은 학생의 자주적 삶을 꺾박하고 있는 제도교육에 대항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자신들의 참된 삶을 개발, 자신들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철수의 외침에 고등학생운동의 필요성과 그 정당성이 전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자주성이 집단적 자주성을 겨냥하고, 또 그 집단적 자주성을 발판으로 집단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할 때 이는 ‘운동’이 되는 것이며, 학생에게서는 ‘학생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집단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누구가, 어떤 교사가 “너희 이런 제도교육을 받을거냐”라고 절절히 외쳐낼 수 있었겠습니까? 철수는 자신들의 벗들에게 죽음으로 ‘삶’을 가르친 위대한 교사요, 고등학생의 영웅이었습니다.

다) 정치와 분리해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철수의 ‘노태우 퇴진’

철수는 병원에 실려가면서, 또 병상에서 “인간적인 학교가 되어

지기 위해서 노태우는 물러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고등학생의 분노로 전국민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철수는 자신의 삶을 제약하는 교육과 이를 억압하는 정치의 구조적 연관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일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육의 기능을 간과한 일면적 견해입니다. 교육과 정치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제도교육의 역기능과 맞서 싸우지 않는 교사는 철저히 어용정치교육을 의도적으로든 미필적 고의든 하고 있는 것이며 제도교육의 역기능과 맞서 싸우지 않는 학생은 철저히 노태우와 미국의 하수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길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정치와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억압의 땅, 식민지 반도에서는 교육이야말로 미국과 노태우집단의 권력을 보장하는 가장 강한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철수는 부모에게서 받은 납부금을 '누구 배만 불리는 것이냐'며 그것으로써 자신이 받게 될 제도교육,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밟아가게 될 삶에 대하여 통렬하게 비판적인 녀두리를 쏟은 바가 있습니다.

철수를 비롯한 많은 우리의 제자들이 교육과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태우와 우리 교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습니다. 교사 자신이 가지는 정치적 기능에 대하여 우리는 냉철히 직시하고 진솔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교육이 어느 한 교사의 모범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면 철수는 분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태우정권의 퇴진이 없이는 결코 인간적 학교가 이룩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철수는 분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타도 노태우, 쟁취 인간화 교육"

#### 라) 통일을 염원하는 철수

철수에게 통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때문에 통일이 그리 중요하다고 그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통일의 노래를 불러 달라고 했을

까요? 철수는 앰블런스에서도 '통일노래'를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통일을 요구한 발언은 없으나 분신해서 광주에 오기까지 그는 통일의 뜻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자 한 것입니다.

철수에게 '민주화 된 세상'과 '통일된 조국' '인간적인 학교'는 뭘때야 뭘 수 없는 것이었나 봅니다. 철수의 의지는 독재정권과 반인간교육, 분단의 고통……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모순으로부터 생겨나고 있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해맑은 웃음으로, 환한 미래를 꿈꾸어야 할 나이의 철수는 자신이 삶에 진지하고, 인간을 사랑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도 힘겨운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스런 우리의 제자, 통일투사 철수를 진정 우리는 사랑합니다.

#### — 철수 분신의 의미는? —

가) 과거의 자살과는 달리 투쟁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명백히 철수의 분신은 투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충동이나 심약한 아이의 안타까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승희누나의 분신소식을 접하고 3일간의 단식끝에 분신을 결정하였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염원했던 인간교육을 위해 노정권이 퇴진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일어서야 하고 이를 위해 고등학생의 분노가 전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던 듯 싶습니다. 철저히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진 철수의 행동은 과거 성적비판으로 자살했던 많은 학생과 또한 작년의 김수경 학생과 심광보 학생의 자살과 견주어 보면 이것들의 의미가 발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자 함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유형의 자살들이 서로의 삶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면서 그러한 자살을 극복하고자(자신에게 짓누르는 모순들을 극복해내고자)

좀 더 발전된 삶의 질들이 모색되어지고 이것이 좀 더 주체적이고 투쟁적인 형태를 띠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적비관 학생들의 소식을 들어왔고 그때마다 죄책감과 숨막히는 고통을 느껴왔으며 또한 나의 직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되물어 볼 때가 많았습니다. 어찌보면 그것은 참으로 대책없는 고민이었으며 소모적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앞에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 운동의 올바른 방향정립이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제도교육이 빛을 타살이었으며 너무도 고통스러운 교육현실에서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또는 자신의 가녀린 삶의 의미를 지켜내고자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진정 안락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구조악의 고통은 너무도 강하게 짓누르고 반면 이것을 외면할 수 있는,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 그리고 기만적인 이념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집단'도 없고 발산할 수 있는 여가선용의 공간도 없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부모와 학교 그리고 세상이 주는 혐오감은 참으로 공포스러운 극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자살은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이 즐겨 찾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살은 참으로 생명을 중시 여기고 삶의 의미를 갈구하는 자들이 절망가운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결과입니다. 죽음의 의미와 공포는 누구보다도 그들이 철저히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삶의 공포가 무엇보다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의 공포를 우리가 무책임하게 방관하며 그들에게 떠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관심과, 자신은 괜찮다는 이기적인 근성으로 인해 구조의 다른 한쪽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에 헤메었을 겁니다.

그러한 그들이 89년 이후 자치활동의 자기탈출구를 진정 자신의 해방의 논리로 받아 들이게 됩니다. 발전된 민주주의의 투쟁사가

그들에게 도무지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소박한 자율의 논리, 정의의 논리에, 참교육의 논리에 자신의 실천을 옮겨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롭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쏟아지는 집중적인 탄압을 견디어 내기에는 너무도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수세적인 자기방어였으며 자기 양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철수의 분신은 고백이기보다는 선언입니다. 명백히 사회적 행위였습니다. 수세적이기보다는 공세적인 자기 메시지였습니다. 아직도 철수의 분신에서 그러한 의미를 느끼지 못한 채 과거의 자살과 동일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살의 현상적 동일성만 볼 뿐이요, 진정 그 배후에 자라나는 고등학생집단의 성숙을 못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철수는 자신의 분신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과거와 같은 동정적 시각이나 우리가 잘해서 저들에게 서린 지경에 가지 않도록 해야지…… 하는 시혜적 논리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철수는 고등학교 교육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그 무엇을 국민에게 알리려 분신했던 것이 아닙니다. 철수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투쟁에 자신의 친구들이, 국민들이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항 목	성적비관 학우	김수경, 심광보	김철수
	구조의 결과	저항운동 이루어짐	집단적 목적의식적저항
죽음의 뜻	삶과의 단절	삶과의 단절	삶의 지속
대중에의 의미	교육의 심각성 알림	학생탄압과 학생의 참교육의지 알림	학생들의 주체적 투쟁을 호소, 투쟁동참호소
	고 백	고 백	투쟁선언
교육운동적 의미		김수경(민주교육) 심광보(민중학교)	인간화교육

나) 인간교육, 민주세상의 투쟁주체를 학생으로 보았습니다.

철수는 기성세대에 의존적인 운동논리를 거부하고 학생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운동을 추구했습니다. 명백히 학생집단으로의 자기 소속감을 가지고 자기 집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기 집단의 자주적 각성과 떨쳐 일어섬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철수는 이제 고등학생이 교육의 주체이고 결코 시혜의 대상이 아님을 스스로의 부단한 실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고등학생 운동의 단절된 전통을 영웅적으로 복원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로버트 교육이 아닌 인간교육의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철수로 인해 우리는 제도교육의 살인성과 그 속에 신음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염원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기치아래 전교조의 깃발을 내건 우리는 교육운동의 의미를 다시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적 양심을 자신이 가르치는 교육내용을 통하여 확인하려 합니다. 현재까지는 전교조 운동의 참교육실천이라는 부분도 공동수업으로 대표되는 교과활동을 통하여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교육모순을 무엇을 통하여 느낄까요?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규정하는 부분은 딱딱한 교과서를 통해서가 아닌 교사, 또는 학생과의 인격적 만남의 여부에 있습니다. 더 세밀히 나아가면 교수학습 프로그램도 얼마나 인간적 만남의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 — 하는 데에 교육의 질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식위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삶이 들어설 수 없는 현재의 교육과정. 이로 인해 아이들의 삶과 주체적으로 교사는 대응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삶이 대상화되고 마는 교사들의 집단적인 인식의 굴절. 오로지 인간교육이라는 것이 테일러 시스템에서 포드시스템으로 바뀌듯 개량화된 학급경영철학을 인간교육이라고 생각하는(이것은 군대에서 이미 실시되는 지휘원리이다) 교육 목적의식의 상실. 이는 아이들을 항상적으로 주체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빚어왔습니다.

주입식, 사지선다형의 교육과 암기위주 교육속에서 아이들의 너무도 자연스런 인간성인 왜? — 라는 의식이 박탈된지 오래고, 그로부터 아이들의 주체적 세계관의 형성과 합리성은 들어설 틈 없이 대중사회의 물리력에 짓이겨지지 않으려는 눈치와 약육강식의 정글의 논리에 처세의 철학과 현실안주, 회피의 철학만 무성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경험에 대하여 깊이 있는 사색과 토론, 함께 나누어지는 경험에 대하여 평가들을 통해 실천적으로 세계를 이해하기 보다는 고작 몇 편의 소설과 에세이들의 다독으로 지성과 사색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철수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회색 인간교육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전체 사회구조 속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간파하며 철수는 몸서리치게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교육은 물리나야 하고 전 고등학교가 인간화되어야 한다는 철수의 절규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교육운동 속에서 인간화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염원을 깊이 주목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과 아울러 교육방법에 관하여 선차적으로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교육방식이 혹 아이들을 눈치꾼, 처세꾼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혹 아이들을 자폐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를 극복하고 아이들의 자주성과 창의성, 공동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이제 과학적인 검토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더이상 참교육사상을 개인의 도덕적 실천사항으로 제시하지 말고 조직적인 실천사업으로 우리를 강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인간화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제기와 토론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실천을 내오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참교육을 하는 것은 더이상 개인적인 실천의 영역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투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 고등학생 운동의 영역에서 정치투쟁의 부분이 빠질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수에게 노태우퇴진의 문제는 결코 교육문제와 별개의 것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치투쟁과 별개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수 없다는 교훈을 소중히 간직한 저희들은 너무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등학생이 정치적인 문제를 열거하는 것에 대하여 적잖은 염려를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까닭은 사실 고등학생이 정치를 알아서는 안된다. 민족현실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은 곤란하다…… 라거나 혹은 그들의 정치의식의 발전을 적절히 교육적 관점에서 지도해낼 우리들의 정치교육의 여건이 성숙해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사의 제약된 조건때문에 학생들의 정치의식이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입을 자유스레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학생들에게 냉소적인 정치의식이나 정치현실을 회화화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제약된 조건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와 친지들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레 발전하는 정치의식을 억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등학생의 발전을 차단하기 보다는 그들이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응력을 키우도록 조언해야 할 것입니다.

철수를 비롯한 이 땅의 청소년들이 노태우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5.18이 올바로 역사에 기록되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 자신의 아버지가 제국주의 자본의 요구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또한 그들의 축제에서 독재정권을 풍자한 연극대사를 발표하는 것은 학생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민족의식이며 정치의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의식과 정치의식— 그 자체가 아이들의 학습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고등학생 운동은 학내문제만 거론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그분이 실제로 학생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해본다면 그러한 자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과연 학내문제에만 비롯되는 것인지, 과연 고등학생들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박탈하는 것이 학내문제만 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들의 삶에 동참하여 하나된 교육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정치문제를 거론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육행위가 학생대중의 주체적 자발성과 대중성을 결합하면서 이루어낼 것인가—에 관하여 고민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입니다.

마) 고등학생 운동도 통일운동의 주체일 것을 암시했습니다.

철수의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염원은 그들이 단순히 통일을 낭만적으로 관념적으로 바라보는 주체의 수준을 넘어서서 통일을 자신의 삶의 사회적 요구로 갖고 있는 존재임을, 그러한 존재로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집단을 통일운동의 관망자로 만들지 말고 통일운동의 주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고등학생운동사에서 김철수군의 분신과 학생운동의 방향

이 상 호(김철수학생 분신대책위 상황실장)

### 1. 김철수군의 분신과 대책위 활동

91년 5월 투쟁은 강경대열사 타살 사건을 기폭제로 하여 그동안 탄압에 지리멸렬하던 민민진영이 노정권의 총체적 실정과 대중의 도덕적 공분을 바탕으로 하여 신속하게 국민연합 중심으로 범국민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대중투쟁을 집중, 상승시켜 나아가게 됐다. 박승희, 천세용 등 잇단 분신투쟁은 전대협과 노동자 계급뿐 아니라 김철수분신을 계기로 300만 고등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광범위한 노태우정권 퇴진 투쟁을 5월에서 6월로 고양시켜 나갔다.

전교조는 5월 투쟁의 초기 민민진영의 연대사업 차원의 결합수준으로 노재봉 내각사퇴의 낮은 요구를 제시했으나 5.8 시국선언과 김철수분신을 계기로 '참교육실천'의 민중적 요구를 내세우면서 반노전선에 교육부문의 요구를 담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김철수분신대책위 사업을 기층민중의 폭발하는 노퇴진 투쟁에 교육부문의 요구를 담고 전체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전교조가 증폭시킬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시국선언 후속작업과 함께 교육부문의 반노전선을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까지 심화,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였다. 상승하는 6월투쟁에서 전교조 사업을 교사—시국선언 후속작업, 학생—김철수분신대책 사업의 양축으로

결합시켜 나가면서 노퇴진의 당위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그러나 광역선거 참여전술과 맞부딪치면서 조직역량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반노전선에 조직대중을 집중시킬수 있어 '가능한'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으로 제한 수행되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중앙에서는 전교조 대책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전국적인 홍보,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당초 범국민대책회의와는 긴밀하게 협조하며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범국민 대책회의가 명동성당의 고립된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 한계로 공동투쟁 활동은 6.8일 3차 국민대회를 명동성당으로 정하는 선언적 사업에 그치고 서울지역 추모제는 고등학생과 전교조 교사만으로 동국대에서 별도로 치루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광주전남대책회의)를 중심으로한 지역사업은 지역대중의 열기를 집중해내며 중심축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해냈다. 특히 전교조 전남지부 대책위 산하 보성대책위에서 전교조 교사가 중심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농민단체, 노동단체와 결합하여 2차례의 군민대회를 관권의 탄압을 뚫고 개최하였으며 선전, 모금활동을 펴는 등 지역운동의 모범을 창출하였다.

광주에서는 교사들이 광역선거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부분적인 참여만 이루어졌는데 반해 고등학생들은 주체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하여 눈부신 활동을 했다.

김철수 학우 분신 고등학생 대책위는 5.21일 조선대에서 고등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조국의 뼈아픈 현실에 분노하는 고등학생운동' '광주지역 고등학생 새벽 편집위원회' '토요교실 연합' '참교육 쟁취를 위한 광주지역연합:참학련' '고교생의 정치활동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광주지역 민주주의 고교생 일동:민고동' 등 지역의 고등학생 운동조직과 연대하여 공동투쟁을 펼쳐 선전, 모금, 집회투쟁을 활발하게 펼치며 장례식때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인 참교육 선봉대를 꾸려냈고 이들은 대중집회와 전대병원 사수투쟁에서 고등학생 대오는 물론 전투부대까지 갖추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냈다.

한편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은 분신기간—투쟁기간에 '참교육을 외치다가 탄압받는 고등학생들 곁에 전교조 교사는 보이지 않았다'고 절규하며 그들의 홍보물에 전교조가 학생사업에 소극적임을 비판하며 전교조 교사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6.9일 망월동 묘역에 안장된 김철수열사의 장례식은 '김철수열사 민주국민장 장례위원회'가 범국민적으로 구성되어 도청앞 노제에서 2만여 시민, 학생 전국의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사의 뜻을 교육 3주체 전국민이 함께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가운데 고등학생운동 사상 최대규모 행사로 치루면서 고등학생 대책위와 전교조, 범국민대책위 활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 2. 분신 이후 권력층의 탄압과 장례투쟁의 성과와 의미

김철수분신에 대한 권력층의 대응은

첫째, 공안정국하에 안기부-교육부-교육위-교육청-보성고로 이어지는 교육행정체계를 전일적으로 지배 통제하여 사건의 성격을 축소하기에 급급하였다. 권력층은 발빠르게 보성지역에 안기부원, 치안본부 관계자, 장학사를 파견하여 상주토록 하였으며 경찰과 읍.면 행정관서도 참여하여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들은 입장을 동원해 제일 먼저 철수 부모님을 회유하는 공작을 벌였다. 철수가 전대병원에 실려간 뒤 부모님에게 배후사주, 선동조사 등을 핑계로 5시간 이상 지체해 하다가 뒤늦게 병원에 안내한 행위나, 철수의 자취방을 경찰에서 수색하여 유류품을 압수, 소각한 행위는 전대일 열사의 분신때 행했던 행태와 유사한 반역사적인 처사였다.

둘째,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배하였다. 언론은 고등학생이 최초로 교육모순과 사회모순을 규탄하며 분신한 해방 이후 최대의 사건을 변두리 지역의 한 학생이 우발적 충동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축소하기에 급급하였고 대부분의 중앙언론의 보도 태도도 이에 맞추어 일단 기사로 1.2회 취급하는 정도나 전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전남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것은 5.18광주민중항쟁에서도 나타났듯이 아예 외면해 버리거나 특정지역의 감정문제로 호도하여 일정부분 성과를 올렸던 5공, 6공의 언론통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고 김철수 분신에서도 지역 언론과 중앙언론의 시각차이를 이해하게 해주는 부분이었다.

셋째, 권력층은 분신의 본질을 철저히 왜곡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김기설 유서대필 조작처럼 배후세력의 사주선동, 철없는 고등학생의 충동적인 분신으로 유언비어를 조작하거나 검찰의 수사로 가족들을 이간시키려 했고 민민권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 당시 광주전남지역과 보성지역 곳곳에 뿌려진 유령단체 '광주전남지역 민주교사연합' '보성지역 학부모 일동'의 이름으로 뿌려진 유인물에서는 서강대 박홍 총장의 발언을 대량 복사해 '죽음을 선동하는 반생명적 배후세력,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죽음을 뒤쫓는 불나방—전교조' '제2, 제3의 분신을 사주하지 말라' 등의 치졸한 문구로 김철수분신의 본질을 왜곡하고 역선전 하기에 급급하였다.

이에 맞서 대책위는

(1) 5.6월 투쟁 사업중 김철수대책사업은 교육부분으로 전교조 차원에서 안고 대책위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전국조직과 전체 민민 진영이 함께 결합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였으며

(2) 제도교육 (입시 살인교육)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살학생 문제를 폭로하며 교육모순과 사회모순에 온몸으로 저항한 분신의 의미를 바로 세워 갔으며

(3) 비인간적인 교육현장 모순을 고등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광범위하게 홍보, 선전하였다. 그리고 김철수 분신과 이후 장례투쟁을 거치면서 300만 고등학생이 100만 대학생과 함께 기층민중의 변혁운동에 독자적이고 조직적인 대오를 갖출 수 있는 가능성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5월투쟁 과정에서 명동성당에서 철야 회의를 거치면서 고등학생 운동세력이 공대위를 구성하고 이후 거리집회 투쟁에서 고등학생의 깃발과 독자적 대오를 형성하며 힘찬 진출을 하여 관계당국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광주전남은 물론이고 전북, 대전, 경남, 부산, 대구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김철수분신에 관한 통일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발전된 양상을 보였다. 국민대중에게 고등학생까지 분신할 수 밖에 없는 교육 현실을 계기로 고등학생 문제를 전면으로 끌고 교육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6.9일 조선대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한 점은 89년 전교조 결성이후 처음 가지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용조직인 한교총이 철저히 침묵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단위학교 현장교사에게 전교조가 교육모순의 해결의 중심에 설수 밖에 없음을 부각시키어 전교조와 한교총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김철수 분신 이후 장례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성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처음으로 자기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섰다는 점이다. 병원사수대와 간병조 편성은 물론 참교육 선봉대로 대표되는 투쟁부대의 편성까지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또한 선전, 모금활동 등에서도 89년 이후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대학생 부문에 못지않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 민민권에서조차 경탄을 금치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고등학생들이 독자적인 투쟁대오와 정치대오로 발전하는 모습이 이후 나타나게 된다.

둘째 교사운동에 있어서 학생사업의 중요성과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하게 했다. 분신초기 전교조에서 분신에 대한 성명서조차 발표하기를 주저하고 있었고 보성고 교사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에 학생들의 자제와 근신을 부탁할 정도로 수세적 입장을 취했지만, 보성고 학생과 인근지역 학생들이 전국적인 군민대회와 결의대회 등 대중집회를 주최하여 김철수 학우의 외침을 올바로 세운점은 제도교육의 직접 피해 당사자로서 학생현실을 폭로하고 주체적으로 나서서 교육운동에 있어서의 위력적인 학생 주체역량을 발휘하였음을 말해준다. 즉 소극적인 교사와 방관자적 학부모, 주민들을 엮어내는 매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은 사상과 정파의 차이를 극복하고 신속하게 통일사

업을 수행해냈다. 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한다지만 운동권 내부의 노선투쟁이 민민권의 단결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소이보다 대동을 위해 다양한 분파적 입장을 통일해내고 함께 장례투쟁에 결합하였다.

셋째 고등학생들의 학교현실을 국민에게 선전하고 고등학생운동이 교사, 학부모 연대에 위력적임을 실증하였다. 김철수의 분신은 5월의 어떤 분신보다도 지역주민에게 자기 자식의 죽음처럼 다가와 보성역 군민대회에서 경찰, 민자당, 어용학부모 등의 방해로 학부모, 군민이 뚫어내고 대회를 성사시킬수 있었다. 치료비와 장례비 모금때 서울 여의도의 시민이나 광주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부들의 반지까지 모금함에 쌓인 성과는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입증해주는 사례였다. 또한 장례식때 중학생과 국민학생들의 애도하는 모습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손자가 당한거나 마찬가지로 같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주 목도할 수 있었던 장면에서도 입증되었다.

넷째 권력층의 탄압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장례식에 중,고생의 참여를 막기 위해 전국의 학교에 지시 공문이 내려졌지만 전체 보성고 학생의 힘으로 영결식을 성사시켰고 광주 도청앞 노계도 경찰측에서 집회불허를 하지 못하고 묵인 방관하도록 강제해냈다. 그리고 이러한 장례투쟁에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참여한 어느 학생에게도 이후에 징계를 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권력과 언론은 축소에만 급급하는, 참으로 통쾌한 성과를 기록했다.

### 3. 전교조와 공개단체의 학생사업

89년 전교조 결성이후 고등학생운동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학생운동에 대한 조직적 지도가 전국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교조 이전에는 민주교육 실천협의회가 고등학생운동에 대한 지원 협력을 책임지려 하고 있었고 호남민교협의 경우에는 학생대중들의 지지를 받으며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

다.

86년 민교협 결성이전과 이후에 서울, 충청, 호남에서 민교협은 공개 비공개적으로 고등학생운동에 적극 개입하여 사학민주화 투쟁 자율학습 투쟁, 직선제 학생회 쟁취 등에서 실제 역량 이상으로 힘을 발휘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민주교실」, 「토요교실」, 「계절학교」와 방학중 학생지도자 훈련 등 호남민교협의 활동은 학생사업의 모범을 창출하였다. 또한 89년 상반기 대중교사들이 전교조 결성에 집중할 때 민교협은 학생대중 집회와 공청회 등 대중공간 확보에 주력하여 「학생소식지」를 발행하며 전교조 결성 투쟁에 전국학생이 동참할 수 있도록 투쟁의 지도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전교조가 안을 수 있도록 조직내에 학생사업국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89년 하반기 민교협의 위상에 대한 토론이 있는 뒤 학생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전교조 학생사업국에 위임, 통합하게 되었다. 이후 전교조 학사국은 사제 만남의 날과 학생탄압 대처 투쟁 등 학생사안에 공개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날」과 「학생주간」 행사 등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또한 「학생소식」의 성격을 대중적으로 전환한 「푸른교실」의 발행, 「토요교실」, 「계절학교」등을 전국적으로 개설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업을 수행해 나갔다.

그러나 전교조는 당국의 조직 말살 정책과 탄압에 대응해 조직 사수·복원·활성화 작업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게 되었고 90년 이후 참교육 실천사업과 학생사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91년 하반기에 학생사업국을 상설위로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참교육 실천사업을 중점사업화하는 논의는 이런 현상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교조 조직내의 논의는 학사 담당자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91년 12월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조직체계 개편안에는 학생사업국(부)를 폐지하는 수정안이 제출될 정도로 학생사업에 대한 상당한 편견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2년 3월이후 학생사업국을 참실연과 통합하여 학생생활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언론지 역할을 하던 「푸른교실」이 계간지 형태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학생사업의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부인하기 어렵고 전교조 사무실에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도 불편하게 보는 조합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철수 추모사업도 전국사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김수경, 심광보의 경우처럼 전남지부의 지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습도 그 한 예이다.

입시위주, 체제유지 수단으로 교육을 보는 보수적 교육관료에 맞서 죽어가는 학생들을 살리고 '학생을 위하여' 참교육의 깃발을 든 전교조에서 힘있게 학생사업이 전개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지배집단의 허구적 이데올로기 통제를 돌파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자주성, 집단성, 정의감을 오도하고 교사들이 '배후사주, 선동' 한다는 흑색선전과 교사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위협, 학생들의 적극적 진출을 막을 수 없다는 책임감 등이 전교조 조합원에게도 깊이 심어져 학생사업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올바른 학생관 정립과 고등학생 운동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조직의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학생생활국이 92년 사업계획에서 '기본적인 정비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지부-지회-지구에 담당자를 세우고 모범창출 사업을 펼치기로 한 것은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한편 KSCM, YMCA, 홍사단 등 그동안 고등학생들의 조직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대중 공간을 제공하며 선교, 사회봉사 등의 목적을 실천해 오던 공개단체들은 70년대 학도호국단으로 자주적 학생단체가 전멸했을 때 고등학생운동의 맥을 잇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 이러한 공개단체와 문화단체의 수공업적이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던 활동을 시민운동 문화운동의 개량적 입장을 비판하며 기피하기 시작하여 현재 활동은 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형식(형태)의 집중이 운동의 비약적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듯 이러한 공개단체들도 앞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고등학생운동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현재 고등학생운동의 비공개성과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외곽단체가 상당한 역할을

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막연한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고등학생운동이 자주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단체가 별도로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교사, 학생의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 4. 고등학생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고등학생운동은 그 성격상 정세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으며 전체운동과 교육운동에 규정당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고등학생운동세력이 우리사회 전면에 나섰던 시기 — 60년대 4월혁명, 87년 전교조 결성투쟁, 91년 5월투쟁 시기는 전체운동이 고양기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였다. 즉 고등학생운동은 그 특성상 민민운동의 후비대로서 민민운동이 고양되고 격하게 대립되는 시기에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활성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민민운동권이 고양기가 아닌 퇴조기나 침체에 접어들면 고등학생운동 역시 전반적인 침체상황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세의 영향을 받는 고등학생운동은 현재 전반적인 침체상황에 규정받으며 '일시적 소강상태'를 맞이하고 있다. 92-3년의 총선과 대선시기를 권력교체기로 규정하며 대처했지만 3.26 총선에서 진보정당인 민중당의 몰락과 정치적 대표체를 자임하던 전국연합의 무능력이 여실히 입증되면서 합법공간 진출의 벽을 실감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투표에 나타난 국민들의 성향을 제대로 분석해내고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민민진영 전체의 방향전환과 반성이 요청되고 있다. 고등학생운동진영도 예외가 아니라 심각한 반성과 거듭남이 있어야 하겠다.

현재 고등학생운동의 활동가들은 89년 전교조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한 활동가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89년 이후 고등학생운동 활동가들이 거의 재생산되지 않고 핵심 활동가들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그동안 후배활동가와 핵심활동가들을 성장시

켜내기 위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등학생운동이 교육운동으로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교육의 근본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89년 이후 고등학생운동의 발전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고등학생운동의 한계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하자.

89년 투쟁은 전교조 교사 징계 지지투쟁과 연합조직 건설노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단순한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구호가 나타내듯, 89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전국 300여개 학교와 400회 이상 시위가 일어났고 연인원 50만명 이상 참여한 놀라운 양적성장도 학내민주화라는 주체적 내용을 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스승을 지키는 차원에 그쳐 진출하는 대중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학칙개정과 학내민주화를 위한 진지구축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89년 투쟁은 진출된 대중을 교육모순의 폭로와 재단비리, 보충자율학습폐지, 군사문화-교련, 교복 철폐등 대중적 요구를 담아 고등학생이 교육운동의 당당한 주체로서 서지 못하고 단순한 직선제 학생회 쟁취 차원에 그쳐 90년대 들어서는 학생회가 투쟁의 내용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대중과 괴리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학교측의 탄압과 스스로의 한계로 학생회는 무력해지고 대중들에게는 패배의식만 남긴 채 투쟁을 통해 쟁취된 결과물도 흐지부지 사라지는 한계를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그동안 형성되어 온 운동역량이 '전교조'라는 전국단위의 학생사업을 매개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문건을 통해서 나타난 고등학생 연합조직은 '전교조'결성을 표방하기도 하였지만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을 살펴보면 광주지역 고등학생 협의회, 마산 창원 고등학생 협의회, 부산지역 고등학생 협의회, 목포지역 고등학생 협의회, 나주지역 고등학생 연합, 대구, 인천, 대전지역 등에서 지역연합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진정한 의미의 연합조직의 수준은 아니지만 이 조직들이 보여준 투쟁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광고협이 주최한 '전교조 사수 결의대회'는 약 2만여명의 고교생이 참가하여 가두시위 투쟁을 벌인, 고등학생은

동이 대중운동으로 발전하는 모습과 엄청난 위력을 보여준 것이었다.

당시 정원식 문교장관과 관계기관에서도 실로 고등학생의 진출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고 탄식할 정도였다. 89년은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동일한 구호를 가지고 집단적 투쟁을 경험한 시기였다. 그러나 하반기에 참교육 건기대회, 정태춘 순회공연을 제외하고는 입시제도와 객관적 정세의 퇴조, 학생운동 지도부의 교체 등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90년은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모습으로 학생운동이 진행되었다. 90년 춘천, 원주지역과 군산, 이리지역의 학교들이 고교경쟁 입시부활 반대투쟁을 벌였고 대구 경화여고 김수경 학생의 투신, 충주의 심광보 학생이 자살로 교육모순에 항거하였지만 89년에 비하면 현저히 위축된 모습이었다. 이는 90년 공안정국의 탄압속에 전체 민민권의 위축된 모습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민민권과 고등학생운동이 공안통치에 눌려서 91년의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강경대 타살정국으로 돌파구를 열고 김철수 분신으로 91년 고등학생운동은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된 점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한편 고등학생 내부에서도 독자적인 운동으로 성장하기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투쟁이 일회적이며 계기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김철수 분신때 '참교육 선봉대'도 투쟁주체로서 대오를 꾸렸지만 '장례대책위'의 역할에 그치고 교육모순과 사회모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서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보자투'나 '학생회'쟁취 투쟁도 일회적으로 그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교육관료와 보수적 여론의 힘으로 쉽게 무너지는 것도 이러한 고등학생운동의 한계이다. 또한 학생 탄압에 대한 대처 방식도 단학 중심으로는 한계를 지녀 인근학교, 지역연합 등 공동투쟁을 조직할 수 있어야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학생회와 고등학생운동 그룹이 학생운동을 주도할 선진

활동가의 배출 및 훈련구도를 갖지 못했다. 학생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대중사업을 전개하며 지도자가 대중에 의해 선택되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러한 구조나 조직사업을 가지지 못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운동의 독자성과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했다. 자신의 현장에서 실천적 고민에 눈을 돌리게 하지 못하고 현장과 괴리된 관념만 주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자신의 현장에 책임성을 가지지 못하고 소영웅주의적 관념적 활동가만 늘었거나 대중에게서 괴리된 채 배타적 씨클주의로 전전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장의 실천사업도 학생운동의 정책부재로 전략사업과 전술사업이 구분되지 않고 즉흥적인 사업결정으로 과학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었다.

네째, 연대사업과 외곽단체의 지원을 활용해 내지 못하였다.

지나치게 고등학생운동의 독립(고립?)을 강조하거나 전교조를 포함한 교사-학생-학부모의 단체와 긴밀한 연대속에 사업을 해 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지원사업에 머물거나 의존적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개단체를 취향에 따라 선별, 비판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합법적이고 공개적이며 대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와 조건을 활용하지 못했다.

다섯째, 고등학생운동 활동가들에게 '이전' 문제와 전망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3년과정에서 활동가로서 성장하고 역할을 수행해 내는 기간은 한시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고등학생운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전의 장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활동가들의 재생산은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현재 고등학생운동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섯째, 학생회, 동아리 등 대중조직과 지도조직을 제대로 결합해 내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에는 공개적인 학생회 동아리 등과 비공개 모임들이 존재한다.

학생회, 동아리, 소모임 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학생운

동의 내용을 공급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서로간에 주도권(?) 확보 경쟁으로 비난과 분열적 모습이 만연하여 오히려 대중사업을 방지하고 대중의 비판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등학생운동이 일회적 계기투쟁이나 자생적 움직임 정도의 수준을 극복하고 역사적 주체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고등학생운동 평가와 함께 보다 치밀하고 끈질긴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민민권과 사회운동의 지원과 교사, 학생의 주체적 노력, 교육관계자들과 외곽단체의 전문적인 연구가 함께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 대학생(또는 노동운동권) — 고등학생으로 지도 노선이 이루어지면서 고등학생의 정치의식이나 정의감을 말초적으로 자극하여 소그를 골방 학습 형태로 몰고 나가는 것은 고등학생 운동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질곡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고등학생운동의 운동성장과 전혀 다른 노동운동, 대학운동의 이론서와 논쟁들이 걸리지 않고 곧바로 흘러 들어와 오히려 고등학생 운동가들을 노선과 입장에 따라 분열시키고 논쟁만 치열하게 벌이게 하는 것은 고등학생의 자주적 운동 발전을 왜곡시키고 고등학생운동이 대중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 한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고등학생 정치활동쟁취를 위한 공동실천 위원회' 명칭의 활동도 추상적인 정치활동으로 학생대중의 요구에서 출발하지 않고 대학생 지도를 받아 하는 사업으로 일반 학생들이 외면을 해버리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앞으로 고등학생 운동이 주체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몇가지 제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 운동은 사회운동 이전에 교육운동으로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생운동 활동가들은 교사와 교육문제를 토론하고 지도받아야 한다. 다른 민민권과 대학생들도 자기의 주장을 선전하기보다 교사와 함께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대중 운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교조의 조합원교사와 학생사업 담당자들은 보다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개적인 대중공간과 집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학생들은 보위를 내세워 비합법 조직형태와 사업방식을 전개하고 있으나 고등학생 운동의 사업내용이나 조직이 사상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점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이나 수사당국의 탄압을 내세워 비공개 비합법으로 고등학생운동을 끌어 가려는 데에서 고등학생운동의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단체, 사회단체, 문화단체 등 공개적인 단체의 공개활동과 합법조직을 최대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다양한 대중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고등학생운동 활동가들이 사소한 입장과 노선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고등학생운동 전체에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고등학생운동 활동가들은 대중사업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자기 학급 학년과 학생대중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골방학습과 교조적 논리로 스스로 운동가를 자처하며 대중을 지도하려는 자는 대중에게 비판받게 된다. 소영웅주의나 반항아적인 감상을 절제하고 올바른 품성을 쌓도록 훈련해야 한다.

공개적인 선전매체를 가져야 한다. 자주적 학생회 운영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때 필수적인 것은 자신들의 활동을 학생대중에게 항상 알릴 수 있어야 한다. 학생신문이나 교지, 방송반의 활동에 참여하고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권력측은 제일 먼저 언론을 장악해내듯이 이 학생운동 세력도 언론 매체를 장악해야 대중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 동아리 활동, 클럽활동, 학생회활동을 선전해내기 위해 기존 매체를 활용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작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 우리나라 현행법체계상 고등학생의 권리

신 현 직(계명대 공법학과 교수)

### 1. 머리말

무릇 각 개인은 그가 갖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따라 법체계상의 지위나 권리 관계에 있어 차별성을 갖는다.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 특히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그 개인이 갖는 법적 지위나 권리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별로 관심이나 체계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우리의 법체계상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에 따른 특별한 법적 처우가 실정법상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고, 법률적으로는 다만 미성년자 즉 연령에 따른 차별성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나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법적권리가 일반법으로서 체계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별 법률들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규정되고 있다. 더구나 학생이라는 신분과 관련된 법적 권리에 관해서는 교육관계법상으로도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은 만 15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연령층을 갖고 있으므로, 그들 연령층이 갖는 실정법적 지위나 권리가 일반 국민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등학생의 어떠한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냐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2. 실정법 규정들의 현황

현행 헌법상으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법(제32조 5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종래 참정권과 관련된 선거연령에 관해서 만 20세 이상이라는 규정(구헌법 제23조)은 현행헌법의 제정과정에서 그 연령을 만18세로 낮추자는 야당측의 의견과 만 20세로 유지하자는 여당측의 견해차로 인하여 결국 헌법에서 빠져서 하위법인 선거법으로 위임됨으로써 삭제되었다. 따라서 헌법상 고등학생은 학생이라는 신분자체가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기타의 권리는 일반 국민이 갖는 기본적 인권과 동일한 것이고, 다만 노동에 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참정권으로서의 선거권은 현행의 국회의원 선거법 제8조 등의 각종 선거법상 만 20세 이상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에게는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또한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 또한 국회의원 선거권 있는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7조)정치적인 활동권도 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성숙연령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경향과 함께 외국에서와 같이 만 16세 내지 만18세로 인정되거나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는 만 18세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성년연령과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자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현행법 체계상 성년연령의 기준이 되는 것은 민법이며, 동법 제4조에서 성년연령을 만 20세로 하고 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인 限定治産者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며(동법 제5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만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동법 제6조), 위 두가지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으며(동법 제7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되지만,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이러한 규정은 모든 재산법 관계에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민법상의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사려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개별적인 능력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나이 한두 살 또는 생일 며칠간의 차이를 두고 획일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만 20세로 외국에 비해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민법중에서도 가족법 관계에서는 좀 다르다. 미성년인 남자는 만18세, 미성년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한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으며(동법 800, 801), 혼인할 수 있다(동법 제807, 808). 미성년자는 분가할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788조). 入養 또는 罷養의 경우에 있어 15세 미만자는 부모 등의 승락을 얻어야 하며(제869, 899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71, 900). 그러나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에는 성년자로 간주하므로(제826조의 2),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만 18세 이상된 남학생이나 만 16세 여학생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은 민법상의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게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법상의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연소자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은 과거 초기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소년노동의 착취관행을 막기위한 배려로 나온 것이다. 우리의 근로 기준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제50조). 만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장에 사용하지 못하며(제51조),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취하여야 하고(제 5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 장관은 근로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3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54조),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다. 또한 항상 30인 이상의 18세 미만자를 사용하는 자는 그에 대한 교육시설을 하여야 하며 다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시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8제63조). 이러한 노동법상의 보호는 여성 노동자와 함께 신체적인 이유에서 특별보호를 하는 것이며 학생이라는 신분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형법상으로는 범죄에 대한 인식 능력이 없다고 보는 만14세 미만자를 형사 미성년자로 특별 취급하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책임에서 그들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따라서 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가능해진다. 소년법상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를 말하며(공법제2조)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0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59조).

병역법상으로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17세가 되는 자는 편입대상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8조) 17세 이상인 자는 현역병 입영지원자가 될 수 있고 (동법제19조) 고등학생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징병 검사 및 입영연기가 가능하다(제52조). 또한 주민등록법상으로는 17세 이상자에 대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토록 되어 있다(동법 17조의 8).

### 3. 현행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교육법이론

이상에서 보듯이 현행 법률들은 미성년이라는 연령에 따른 구별을 할 뿐,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에 따른 특별한 취급은 병역법상의 징병검사 연기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법적인 특별취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화는 교육관계법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행 교육관계법에서는 제4절 고등학교(제104조-제107조의 5)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학생의 지위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없다. 그것은 기본적 인권을 비롯한 모든 법적 지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학생 또한 일반 성인과 차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다. 그것은 전근대적인 교육관 내지 일제하에서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가주의적 교육관과 현행 교육제도 등에 학생들의 권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실정법상의 보호조항이 마련될 때까지는 법이론과 판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권리는 학교와 학생간의 재학관계의 법적 성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행정법학설에 따르면 학생의 재학관계는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營造物 利用關係로 보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 보았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적 契約관계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과거 독일의 國家主義 教育觀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견해를 형성하여 왔으나, 60년대 이후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쇠퇴되기 시작하였고, 학생의 재학관계의 법적성질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차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극복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교육법관계에 있어서의 학생의 재학관계는 단순히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넘어서, 교육법이라는 특수법관계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교육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법관계로서 파악될 것이 요청되기 때문에, 국가를 교육주체로 보아 공권력의 행사로서 교육을 파악하고 학생은 그 대상자로서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는 더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교육행위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한 재량권이 용인될 수 있을 것이나 裁量權의 逸脫을 이유로 하여 司法審査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도 종래와 같이 퇴학처분이나 졸업거부 등의 대외행위에

한하지 않고 재학관계 내부에 있어서의 징계처분이나 유급 등의 학교교육 조치에 있어서도 학생의 학습권, 기타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학교당국에게 인정되는 일정범위의 포괄적 결정권능도 사학의 재학관계와 공통되는 교육관계권능일 뿐이며 결코 특별권력관계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므로, 학생 및 부모와의 기본적 합의에 기초한 각 학교의 교육자치관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의 재학관계는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학교의 재학관계와 같은 성질로 파악되어 '교육법상의 재학계약관계'로 해석되어야 하며,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행정법상의 공법계약도 아니고 단순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볼 수도 없으며, '교육법에 특수한 계약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학생징계에 관한 적법절차의 권리를 확인한 Dixon 판결이후 학생의 권리를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재학관계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즉 친권자대위론, 헌법적권리관계론, 신탁이론, 조합론 또는 보통법상의 재산권설, 계약이론 등이 그것이나, Tinker 판결이후 계약이론은 수용여부는 문제시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문제될 뿐이다.

사립학교에서의 재학계약관계에 있어서도 이를 일반민법상의 단순한 사적계약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공교육으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한 특수법상의 특수계약의 일종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공립학교와는 다른 사학의 특수성에 입각한 내용들은 재학관계의 약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칙'에 의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나, 교육기본권이라는 대전제에 입각한 교육법 관계의 기본원리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들에 있어서 학칙 또는 교칙은 학교의 일방적인 권한행사를 위한 규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의 권리보장이나 그를 위한 절차법적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 4. 고등학생의 권리와 그 보장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보고 학생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 학생의 인권은 국민이란 개념자체가 추상적이고 학생들이 미성숙한 점 등을 이유로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생을 교육의 대상자들로만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은 교육과정 속에 매몰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며, 피교육자라는 신분만을 이유로 헌법상의 기본권이 법적근거나 법리적 해명도 없이 침해되고 있다. 즉 여기서는 특별권력관계 등의 이론적 논의조차 없이 학교의 포괄적인 교육권한과 부모의 친권에의 복종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업이나 생활지도 기타 학교행사 등에서 '사실상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학생의 인권이 학교의 교육활동 속에서 갖는 법적 의미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히 추상적인 교육목적론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헌법상의 자유권 기타의 인권이 학생들에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타당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그들의 학습권과의 관련하여 「교육을 받는 과정의 권리」로서 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이 미성숙하며 발달과정에 있다는 점과 학교, 교사의 사실적 우위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들의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며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能力主義」教育에 의해 序列化되는 학생들은 학습중은 물론 교외활동에서까지 모든 언동이 관리, 통제되고 관리자에 순종할 것이 행위규범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管理主義」教育하에서는 학생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학생의 학습권으로서의 교육내용 결정에의 참여와 선택의 권리, 학교운영에의 의견제시와 참가의 권리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학습권의 행사는 부모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학생의 발달정도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초등교육의 저학년인 경우에는 거의 전부가 부모에 의해 代位行使될 수 있

지만, 최소한의 자기판단력을 갖는 국민학교의 고학년 이후 점차 상급학교로 갈수록 그 발달단계에 따라 학생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행사하게 되는 영역이 확대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으로서 직접 행사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 자치활동은 물론이고, 교과과정과 학교운영에 관하여 각 단계에 상응하는 참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986년 프랑스에서는 중등학교의 학교관리 위원회에는 교직원 대표가 6분의 2, 부모대표, 학생대표, 교장과 장학관 등의 교육행정 대표, 기초자치단체등의 다른 관계자 대표가 각각 6분의 1씩 참가하여 운영하도록 법제화하여 학생대표의 학교참가를 인정하였고, 그 다음해에는 국민학교에 까지 확대하여 어린이 대표의 참가를 권고하고 있는 것 등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교육과정상의 권리로서는 인격권, 일반적 행동 및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징계절차상의 권리 등이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 판례법상 확인되고 있는 원리는 학생회자치권, 학생신문 발행 및 결사의 자유, 교외활동의 자유, 학생 생활기록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자유, 결혼의 자유, 복장과 용모의 자유, 모욕적인 벌과 체벌의 문제, 징계에서의 변론권 기타 적법절차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제는 물론 학칙이나 교칙 등에서도 이에 관해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교육목적을 위해 학생의 원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교육목적'이란 애매성과 추상성을 고려할 때 그 구체적 내용과 한계를 심의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교육기본권이 학생들 자신의 권리인 이상 그들의 학습의 자유와 인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명백하며, 그를 위한 교육관계법의 정비와 구체입법이 시급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 청소년의 특성과 주체적 삶의 조건

김 성 재(한신대 교수)

### 1. 청소년을 이해하는 사회

한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곧 그 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사회의 가치관과 미래의 희망이 어떠한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인생의 과도기적 존재로 이해되어 왔다.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발달과정의 존재로서 나이는 아동이 성인의 역할을 가정의 외부에서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형식이 청소년기이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기는 원시사회에서는 없었다. 즉 가정의 아동에서 사회의 성인으로 직접 신분 이동을 한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 과도기적 청소년의 존재형식이 점점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심리·사회학적으로 과도기적인 존재로만 이해되던 청소년의 이해가 오늘에 와서는 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1960년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학생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이 학생운동은 지금까지 신분적 측면에서 권리에 있어서는 아동이고 의무에 있어서는 성인으로 취급되어 왔던 기성인 세계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적으로 '아기도 낳을수 있고, 전쟁도 수행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전쟁 수행 밖에 없는 현실에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적인 선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 길리스(John R Gillis)는 "청소년은 그들의 역사를 스스로 만든다"고 하였다.

학생운동에서부터 비롯된 이들의 자주적 인간선언은 단지 자신들의 '권리선언'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비판과 새로운 세상창조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학생운동은 제3세계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유엔이 '세계 청소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참여, 발전, 평화"라는 주제를 제시하였다. 유엔이 이러한 주제를 제시한 것은 청소년이 더이상 기성세대의 이용물 또는 희생물이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인식 때문이었다. 즉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권력과 소유의 확장 또는 유지를 위해 벌이는 전쟁에 더 이상 청소년을 희생제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욕망때문에 오염시키고 파괴시켜버린 지구를 이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이며 미래에 살아갈 그들의 세계를 가꾸고 발전시켜야 할 권리와 책임이 오늘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엔은 이들로 하여금 오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서 인간다운 세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의 삶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청소년의 해'에 우리 사회가 주제화 한 것은 '참여, 발전, 평화'가 아니라 '보호, 선도, 교화'였다. 청소년을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보호, 선도, 교화의 미성년'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범죄적 가능성의 존재'로만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삶이란 가정, 학교, 사회 할 것 없이 전부 감독과도 같은 것이다. 그들의 주체적 삶이란 그 어느곳에서도 이루어 질 수 없게 되어있는 현실이다. 기성세대는 이들에게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라고 하지만 이들에겐 오늘을 희생하며 바라볼 진정한 미래가 우리 사회에는 없으며, 단지 이 미래는 이들이 오늘 희생당하고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의 복사판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미래가 아니다.

이렇게 청소년을 보호, 선도, 교화의 차원에서만 보는 우리 사

회는 후진 사회이다. 후진사회는 단지 경제적으로 못사는 사회가 아니라 폐쇄된 사회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사회를 말한다. 기성세대는 청소년을 위해서 보호, 선도, 교화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된다. 반면에 선진사회는 개방사회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단순히 미성년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인정되어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회이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 초기 연령인 16살이면 이미 성인이다. 이들은 이 나이에 결혼도 할 수 있고 독립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완전히 어린이이 취급만 받는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은 해외동포들의 삶에서 단적으로 잘 드러난다.

몇 년 전에 호주에 갔었는데 그곳의 한국인 2세 청소년들이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였다. 그들은 학교나 호주사회에서는 성인인데 그들의 가정이나 한국인이 모여사는 마을 또는 한국인 교회에서는 미성년 취급만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 교회를 가기도 싫고 한국인들이 모여사는 마을도 싫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겪는 이들의 갈등은 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없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주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설계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동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갈등과 좌절 속에서 왜곡된 삶을 살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것에 따라 그 사회가 인간다운 사회인가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회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

## 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할 이들의 생리·심리·사회학적 인간발달 과제에서 드러난다. 이 시기에 이루어

야 할 인간발달의 과제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자신의 신체와 성의 역할 인식
- 2) 같은 연령층의 남녀와 새로운 교우관계 수립
- 3) 부모,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 독립
- 4) 인간생활에 필요한 지적 기술적능력과 개념 발달
- 5) 건강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의 확립
- 6)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에 대한 소망 및 실천
- 7)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 인식
- 8) 직업 선택 및 그 준비
- 9) 결혼 및 가정에 대한 준비

이상의 과제들을 살펴볼 때 이 시기는 생물학적 존재로서 이루어야 할 신체적, 생리적 성숙 외에 인간으로서 이루어야 할 인격적, 사회적 과제가 이들의 인간 형성에 중요한 과제임을 알게 된다.

청소년 시기의 인격형성은 자아확립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기는 도대체 내가 누구냐 하는 물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진난만하던 아이가 갑자기 '나'를 주장하고 내세운다. 이러한 돌변에 어른들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당황하게 된다. 이 '나'에 대한 의식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 요소로 인식되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이 '자아의식'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탈하고 싶고 기성인들에게 저항도 하게된다. 과거에는 아무 생각없이 받아들여지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편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모순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인 여러측면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된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이나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회의적인 부정도 적극적인 부정도 있지만 창조적 긍정도 있다.

콜버그(Kohlberg)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가치관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계약·사회입법 지향의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윤리·원리지향의 단계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개

인, 인간, 인권의 가치가 싹트고, 개인들의 가치와 의견의 상대성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법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그 과정을 중시한다. 더 나아가 원칙에 충실하려 하고 도덕원리와 논리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자아가 성장함에 따라 인간의 자기됨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부단한 시행착오적 갈등을 겪으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자아성장 과정의 시행착오를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도리어 이것은 자아확립의 필연적 단계로 인정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 인간의 자아가 확립되려면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그의 인격형성에 역기능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아의식이란 내면적인 자기의식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승인된 의식이다. 내면적인 자기의식이 객관적으로 사회에 의해서 승인받지 못할 때 인격이 왜곡되고 삶은 갈등과 좌절을 겪게 된다. 한국 YMCA연맹이 조사한 '한국의 젊은이, 그들은 누구인가'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을 가장 분노케 하는 것이 '모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할 때', '부당한 취급, 불공평한 대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때'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문제는 그들 개인의 책임보다 그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건강하지 못한 우리 사회가 청소년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자료가 지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물질주의, 소비성행, 향락주의가 만연되고 있다.

(1)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다는 사회 풍조가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2) 서구의 소비적 물질문화, 향락주의의 영향으로 물질만능적 배금사상이 팽배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형성해 가지 못하고 있다.

#### 2)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1) 산업간, 계층간, 지역간, 현실과 이상간의 격차가 심해지면

서 상대적 빈곤의식 내지 불만이 커지고 있다.

(2)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갈등과 불안을 안고 있다.

#### 3) 바람직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가치 혼란상태에 있다.

(1) 가치관의 혼란으로 방향 감각이 상실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복잡한 심리상태 내지는 반항의식을 느끼고 있다.

(2) 이 결과 무절제한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

#### 4)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주는 악영향이 심각하다.

(1) 대중매체를 통한 성인문화와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침입은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자아 형성에도 왜곡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매스미디어가 제시하는 우리 현실과 유리된 문화적 목표나 사회적 가치가 청소년들에게 무비판적으로 내면화 되고 있으며 욕구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

이 YMCA의 자료에서는 정치적 원인 분석을 하고 있지 않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치적 건강성의 회복이다. 청소년은 불의한 정치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희생당하는 계층이다.

무엇보다도 정치도구화된 학교교육과 입시제도에 의해 이들은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끝내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희생을 당하고 있다. 또한 온갖 정치 행사에 동원되고 있으며 정권 이데올로기를 새로운 도덕률로 인식해야 하는 강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특성을 바로 이해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환경이 가정, 학교, 사회 그 어느곳에서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 도리어 이들을 계속 '미성숙아'로 그리고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 3. 청소년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다.

우리사회가 정말 인간다운 사회가 되려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희망속에 아름답게 조망되려면 무엇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제 청소년은 더이상 단순한 '과도기적 존재'이거나 '영원한 미성숙아'가 아니다. 어느 여고 1학년생이 이렇게 자신들의 처지를 항변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사회와 실제 사회의 모습이 달라서 우리들의 정신적인 방향이 시작되었을 때 어른들은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우리를 이해시켜려고는 하지 않고 무조건 이끄는 대로만 하라고 한다. 정말 뭔가 알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 하면 '건방지다', '네가 뭘 안다고 참견이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정신적인 성숙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심코 어른들의 조그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아셨으면 한다”

청소년들이 무엇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들은 사실 알 것을 다 안다. 때로 정치교육에 의해 왜곡된 가치가 주입되어 잘못된 현실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이 사회를 보는 눈은 건강하고 바르다. 달리 말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을 정말 보호, 선도, 교화할 자격이 있는가. 도리어 보호, 선도, 교화 해야 할 사람은 기성세대 자신이 아닌가.

여기 한 고등학생이 이 땅에 한맺힌 사람들의 한을 풀기 위해 특히 광주의 한, 민주화의 한, 인간다운 삶의 한을 풀기 위해 자신의 삶을 '한'으로 승화시킨 사건이 있다. 이것이 젊은 혈기때문이었을까? 영웅심리 때문이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군가 의식화시키고 충동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아니 그렇게 그의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이 사회에서 고뇌하는 아픔의 현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4.19 때 총맞아 죽은 한 국민학생이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

다.

“난 알아요. 왜 오빠들과 언니들이 책가방을 놓고 거리로 뛰쳐나가는지, 어른들은 말 안하지만 난 알아요” 국민학교 어린이가 아는 현실을 고등학생이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만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아니 이 땅에 국민학생, 고등학생 만 큼도 현실을 모르는 어른들 때문에 오늘도 이 사회에서는 많은 청소년이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는 청소년, 병들어가는 청소년을 살리려면 어른들이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을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하며 이 사회를 인간다운 사회로 건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소련을 멸망케 한 주요원인은 획일적 권위주의 체제였다는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말을 우리 사회는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살도록 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도 언제 붕괴될 지 모른다.

청소년의 주체적 삶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살리는 길이다.

## 자율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는 어디에 — 학교 현장에서 판치는 식민문화, 군사문화 —

강 혜 원(우리교육기자)

### 전투선의 노예들

「영화에서 고대 로마의 전투선 모습을 본 적이 있어? 앞쪽에 북을 두드리는 로마 병사가 있고, 배의 양쪽에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노를 잡고 있는 노예들이 줄지어 있지. 노예들은 북치는 병사들의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지. '둥둥 천천히! 둥둥둥 적함이닷! 빨리!' 병사들은 동작이 굼뜬 노예들에게 사정없이 채찍질을 가하지. 지쳐 쓰러진 노예들을 짓밟고, 때고, 죽으면 바닷속으로 풍덩!

우리는 학교생활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둥둥 시험이닷! 열심히 책장을 넘겨랏! 둥둥 시험이닷! 열심히 펜을 굴려랏!" 공부에 지친 학생들, 피를 부리는 학생들에겐 '사랑의 매'라는 허울 좋은 채찍이 내려지지. "우리반 꼴찌야! 너 때문이야! 혼나 볼래! 지도부실로 왓! 찢라버린다!" 갖은 협박과 수모, 결국 버티지 못하면 자퇴, 반항하면 퇴학.

이 글은 어느 청소년 소설의 한 대목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아니 학교를 전투선에 비유하다니 지난친 것 아닐까. 학생들을 노예에 비유하다니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학생들은 안다. 학교라는 곳이 얼마나 학생들을 억누르고 틀에 가두려 하는지.

월요일이면 군대처럼 줄을 맞추어 서서 교장의 훈화를 들어야 하고, 아침에 지각을 하거나 복장이 이상하면 토끼땀을 뿜는 학교, 머리가 조금 길다고 가위를 들이밀어 아무 곳이나 잘라대는 학교, 검은 색, 끈색 교복에 아이들을 가두고, 늘 획일화된 모습을 강요하는 학교, 시험 성적이 안좋다고 사랑의 매를 때리는 학교, 꺼떡하면 단체기합을 받곤 하는 학교…… 이런 행동에는 입시, 장래, 질서, 공동체를 위해 등등의 이유가 따르게 마련이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율적인 학교 생활을 해 나가게 하질 않는다. 오히려 통제하고 획일화시키고, 지시와 전달 속에서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친다. 이것이 바로 식민문화, 군사문화가 학교 현장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군대식 사고가 지배하는 학교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학교에 처음 발령 받은 교사는 선배 교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게 일반적이다.

"학생들은 처음에 잡아야 해. 학년 초에 그냥 '오냐, 오냐' 하고 받아줬다간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른다구. 처음에 무섭게 해요. 잘못된 아이들 벌도 주고 야단을 호되게 쳐야 한단 말이야"

안타깝게도 이것은 그 선생님이 오랜 교사 생활을 통해 얻은 산 교훈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학생들 하나 하나를 인격체로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이들 집단을 관리하느냐는 사고가 깔려 있다. 획일화시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군대식 사고의 첫걸음이다.

아직도 체육시간이면 4열 중대로 줄을 서서 경례를 하고 인원보고를 하는 학교가 있다. 차렷, 열중 쉬잇, 차렷, 총인원 55명, 사 고무, 누군가의 말대로 체육교사는 중대장, 반장은 소대장, 아이들은 졸병인 셈이다. 국민학교나 중학교에서는 떠드는 아이를 칠 판에 적도록 한다. 서로를 감시하도록 하는 이런 풍조는 없어져야